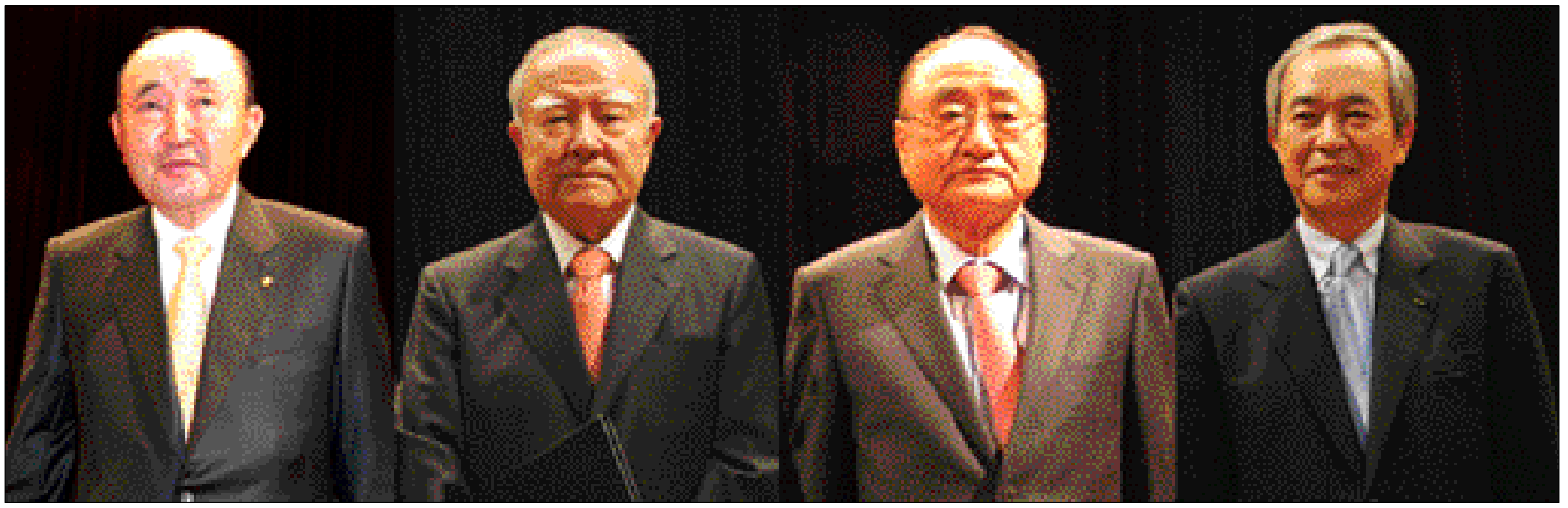
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8년 11월 15일
1976년 4월24일 창간|월간|제368호
www.snua.or.kr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개교 62주년 기념식에서 白樂晥·趙 淳·林光洙·李龜澤동문(좌로부터)이 제1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18~19면〉

홈커밍데이 대성황…“모교 발전기금을 채우자”로 건배!

지난 10월 19일 6천여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제30회 홈커밍데이 겸 가족 친목대회가 열렸다. 〈관련기사 3~5면〉

관악춘추

서울대가 세계 1등이 된다면

우리 야구팀이 북경올림픽에서 9전 전승을 하고, 박태환, 장미란 같은 선수들이 세계 일등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스포츠뿐만이 아니다. 潘基文이 UN사무총장이 되고 李健熙, 尹鍾龍 같은 기업인이 삼성전자를 세계 초일류 회사로 만드는 것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CEO와 리더들의 영향력은 운동선수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서울대도 세계 일등이 될 수 있을까?

태능선수촌은 스포츠 선수를 양성하는 기관이고, 서울대와 같은 종합연구대학은 사회 각계각층에 세계 일등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양성소이다. 이미 태능선수촌은 북경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세계 7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을 잘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가, CEO 등 유능한 지도자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 대학들은 그렇지 못하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2025년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 2050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이런 선진국이 되려면 그에 맞는 인재가 양성돼야 하고, 이는 서울대와 같은 종합연구대학이 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대학 육성에 국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을 세계 2~3등, 최소한 태능선수촌처럼 세계 7등은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서울대는 세계 제일의 전략가, CEO, 학자, 지도자, 전문가를 수없이 양성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에드워드 메이슨 하버드 교수는 한국이 과거 일본 식민통치, 국토분단, 동족상잔의 6·25전쟁 등의 참화를 겪은 것은 유능한 지도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IMF 경제위기를 겪은 것이나 이후 서양 금융모델을 급속히 모방하느라 수백조원의 손해를 본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손실의 10분의 1만 종합연구대학 육성에 사용해도 서울대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국가간, 기업간 돈 뺏기 경쟁시대라 할 수 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세계 최고의 전략가, 전문가, 지도자의 양성은 시급하다. 〈宋丙洛논설위원〉

느티나무광장

나라가 위기일 때

裵 仁 俊
동아일보 논설주간
본보 논설위원

최근 고려대 교수 몇 분과 식사를 했다. 李明博정부의 '고소영 인사' 논란에 대해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 중에 고대 출신이 몇이나 되느냐. 결국 서울대 판 아니냐"고 누군가 말했다.

돌아보면 서울대 출신은 역대 어느 정부에나 많았다. '서울대 때리기'를 일삼았던 盧武鉉정권 아래서도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

정부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계에 동문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등 잘못된 일이 아니다.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서울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50위권에 드는 대학이다.

모교가 최우수 인재의 산실로 꾸준히 앞서 나간다면 국가사회에서 서울대 출신의 중추적 역할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 역할은 영광스럽지만 누구나 영광에 값하는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동시에 국내적인 금융·신뢰 위기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11년 전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정합성 있는 위기극복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공표한 대책은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약속한 지원은 경제의 혈관, 시장 구석구석에 실제로 도달해야 한다. 처방전을 스스로 휴지로 만들어 버리는 정부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만 탓한다고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책의 처리, 경제난 해소에 긴요한 입법, 위기극복형 예산 편성 등에서 정파적 정략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경제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은행도, 기업도, 노동자도, 소비자도 각각 해야 할 일이 있다. 저마다 내 살 궁리만 해서는 경제 추락의 부메랑을 맞기 쉽다. 기업 노사는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더 땀 흘려야 할 것이다. 일부 은행, 공기업, 대기업 노사가 보이고 있는 모럴 해저드는 사라져야 한다.

소비자도 에너지 낭비, 과도한 수입 유발과 해외 소비를 절제해 국제수지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 물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교육·의료·레저·관광 등 여러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면 내수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정부와 국민 각계의 경제난국 타개노력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도 서울대 동문들의 리더십이 긴요하다. 동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를 소망한다.

관악시단

11월의 포인세티아

金 淑 子
(국문64-68)前이화여고 교사·시인

종로 5가
노점 꽃가게에
포인세티아 화분들 줄 맞춰 앉아 있다.

눈 내리지 않은 길에서
빨간 장갑들을 끼고
손을 흔든다.
메리 크리스마스.

갓난아기인 양
작은 화분 두 개 안고 와
현관 양 옆에 내려놓는다.

집을 들고 날 때마다
손가락 펴들고
한 해의 끝을 가리키는
시간의 꽃.

사랑하는 친구의
가슴에 달린
꽃 불 브로치.
십일월 밤의 네온사인처럼.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 행 인 林 光 洙
편 집 인 孫 一 根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02)702-2233 팩스(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鎭鋼, 李炯均, 宋丙洛, 安炳璨, 丘月煥, 宋鎭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裵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曺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李東官, 趙在鏞, 金鎭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 집 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동문칼럼

공공부문에서의 서울대 출신의 역할

金 東 建
(경제61-65)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 출신들이 국가고시나 외국 유학 등에는 관심이 많으나 기업을 평생직장으로 삼아 취직하려는 성향은 매우 낮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기업 중에서 공기업은 좀 낫다고 하나 그래도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서울대 출신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공기업에 취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나 서울대 출신의 경우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재들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필자는 공기업을 매우 좋은 직장으로 생각한다.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소위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도리어 공기업은 한 나라의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기에 서울대 출신 같은 우수 인력이 가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금의 우리나라 공기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얼마 전 공기업 CEO를 지낸 모 인사가 '세발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공기업은 방만경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탄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이 안고 있는 뿌리깊은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공기업에 '주인정신'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책의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공기업을 세발자전거를 타는 식으로 안일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굳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다. 적당히 편하게 일하면서 봉급만 열심히 챙기면 된다. 봉급수준도 만만치 않아 최근 발표된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3백2개 공공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5천3백4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 3천2백20만원보다 66% 많은 수준이다. 물론 연봉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 직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봉급수준만큼의 생산성을 발휘하느냐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민간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면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아마도 민영화할 수 있는 공기업은 민영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새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구호 속에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영역은 민간에 넘기면서 민간영역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무조건 좋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내부적 경영혁신을 통해 공공기관의 체질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민영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

여기에 서울대 출신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다. 서울대의 핵심 이념은 진리탐구 그리고 자유와 정의 추구다. 서울대생이라면 이러한 학교의 핵심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기에 방만과 부조리가 판치는 공공부문에 진출해 이를 바로 잡아 한국을 선진대열에 진입시키는 막중한 일역을 담당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서울대생들인 것이다. 서울대생은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서울대생은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모교의 발전상을 보면서 모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0회 홈커밍데이 겸 가족 친목대회〉

명소탐방·거리연주 등 관악캠퍼스 정취 만끽

경품자동차 당첨 즉시 동창회관 건립기금에 다시 기증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0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동문과 가족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서울대 동문 홈커밍데이 겸 가족 친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평소 시간을 내어 방문하기 어려웠던 모교 캠퍼스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둘러보고 노천강당 앞에 위치한 버들골에서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를 위해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박물관·규장각을 개장하고 버들골 행사장을 위해 모교 각 부처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다.

오전 9시부터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접수를 마친 동문 가족들은 모교 출신 성악가들의 노래가 담긴 '산들바람' CD를 기념으로 받고 재학생들의 인솔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교내탐방 코스를 둘러봤다.

청명한 가을날씨 속에 길을 나선 참석자들은 정문 옆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조각가인 모교 全 晙(조소61-64)명예교수의 '소리-우연과 필연사이' 전시회를 감상한 후 경영대를 지나 박물관에서 특별전 등을 관람했다. 이어 법대, 미술대, 음대, 자하연, 문화관, 근대법학교육1백주년기념관을 거쳐 규장각에서 국보들을 구경한 뒤 버들골에 도착해 준비된 도시락과 태명종합식품 尹煥植(AMPFRI 4기)회장이 제공한 우동을 먹었다.

미술관, 박물관, 문화관 앞에선 모교 음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목관 4중주, 현악 4중주, 금관 5중주의 '거리 연주회'가 열렸으며, 페이스페인팅 행사가 진행됐다. 또 곳곳에 동아오츠카에서 제공한 음료수와 과자, 일동제약에서 제공한 발효유 그리고 모교 발전기금에서 준비한 간식 등이 제공돼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한 동문 및 가족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줬다.

박물관에서 동문 가족들은 김홍도의 '산수도', 장승업의 '영모 10폭 병풍',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등을 감상했다. 2층 특별전시실에 올라가기 전, 1448년 조선시대 때 세계 최초로 제작한 다연장 로켓 병기인 '신기전' 모형물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끈 '몽골, 초원에 핀 고대문화'전에서는 몽골 전통의상을 입고 배경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 부부, 젊은 연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멋진 포즈를 취하느라 발디딜 틈이 없었다. '몽골'전은 내년 1월 15일까지 계속된다.

7천여 국보와 25만점의 고도서·지도 등이 보관된 규장각에서 특별히 동문 가족에게만 개방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의궤 등의 진품이 전시됐다. 참석자들은 대동여지도와 천하도지도에 대한 일화를 재미있게 설명한 큐레이터의 입담에 큰 웃음을 짓기도 했다.

▲ 박물관에 전시된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 병기 '신기전'

◀ 규장각에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경청하는 동문들

▼ 林光洙회장이 협찬한 소형 승용차에 당첨된 孔大植부회장(左)이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동창회에 기증했다.

이날 중앙도서관 앞에선 모교 발전기금이 'Vision 2025' 모금캠페인을 홍보하며 'Vision 2025'가 새겨진 파란 풍선과 건강 팔찌를 나눠줬다. 또 모교 생활협동조합에서 자개상품, 문화상품 등 수십 종의 모교 기념품을 전시 판매했다.

혼잡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가족들은 여유있는 발걸음으로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코스를 둘러봤으며, 건물마다 화장실과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어린이와 노인들도 큰 불편없이 구경할 수 있었다. 코스를 둘러본 동문들은 "공기가 너무 좋고, 산책로를 따라 걸으니 등산하는 기분도 들고, 학교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많은 줄 몰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부 기념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매년 수목원에서 개최해온 등산대회를 자연보호 운동에도 동참하고 모교의 발전상을 보면서 모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행사 장소를 이곳 캠퍼스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李長茂총장께서 법인화, 서울대 노벨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나가실텐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후원의 대열에 동참해 서울대인의 저력을 만방에 떨치자"고 강조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축사에서 "우리 관악캠퍼스는 볼거리가 많고 보기 드물게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야심차게 에코 캠퍼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환경친화적 개발'이 어떠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얼마 전 세계대학총장포럼을 개최해 세계 유수의 9개 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21세기 세계 대학 커뮤니티의 허브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동문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계속해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이날 참석한 협찬금품 출연자들을 소개하고 참여해준 8백여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協贊 동문 명단 4~5면 참조〉

또 예일대 윌리엄 데레시에비츠 교수의 "지성과 덕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할 미국 명문대학들이 반지성적이고 비도덕적인 교육을 통해 출세 지상주의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속물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李長茂총장께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서울대 발전 프로젝트는 예일대 교수가 지적한 그런 속물을 양산하는 서울대가 아님을 느꼈다"고 강조한 뒤 "우리의 힘찬 함성으로 마저 채워야할 모교 발전기금을 채우자!"고 구호를 선창했다.

3부 친목과 단합의 시간을 맡게 된 蔡賢九(체육교육78-82)동문은 신속한 진행과 재치 있는 말솜씨로 행사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

이날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서 온 李典九(임학60-64)미주동창회장은 "7천 여 미주 동문들의 주소록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깜짝 하모니카 연주를 선보였다.

특별공연으로 강남EG치과원장 겸 가수로 활동 중인 EG(본명 李枝英·치의학92-98)동문이 자신의 히트곡 '아파도 사랑합니다'와 '꽃밭에서'를 불렀다. 또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댄스동아리 '피에스타'가 신나는 스윙 및 살사댄스를, 노래동아리 '메아리'가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서태지의 'Take5' 등을 선보였다.

이날 40개 품목에 달하는 경품이 걸린 단체게임에 참가한 동문 가족들은 아이들과 공구르기 게임, 청백전 줄다리기, 어린이 댄스왕 선발전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문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던 경품추첨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이 협찬한 소형 승용차는 본회 孔大植(기계공학56-60)부회장이 당첨됐으나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동창회에 기증했다.

내년에는 관악산을 일부 등산하고 버들골에서 모이거나 다른 건물들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수준높은 모교 방문 행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表〉

홈커밍데이 협찬 감사합니다

동문 가족 친목대회에 협찬금·품을 출연해 주신 각계 동문을 소개합니다.

– 지면 관계로 동창회 임원 분들만 사진 게재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신대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하영기
문리대44·본회 고문
前한국은행 총재
일금 30만원

백낙환
의대44·본회 고문
인제학원 이사장
일금 30만원

김상하
문리대45·본회 고문
삼양사 회장
일금 30만원

강신호
의대46·본회 고문
동아제약 회장
음료수·소이조이 각 5천개

구평회
문리대47·본회 고문
E1 명예회장
일금 30만원

김재순
상대45·본회 명예회장
샘터사 고문
식기세척기 1대

이장무
공대63·본회 명예회장
모교 총장
고급우산 3백개

임광수
공대48·본회 회장
임광토건 회장
승용차 1대

손일근
법대51·본회 상임부회장
한국일보 고문
디지털 카메라 1대

명태현
공대46·관악회 이사
前송원기업 대표
일금 30만원

박영자
사대46
시인
화장품 1SET

신명규
사대48·관악회 이사
前문영여중 교사
일금 30만원

유종해
법대50·본회 부회장
연세대 명예교수
일금 20만원

이길여
의대51·본회 부회장
경원대 총장
드럼세탁기 1대

이해원
법대51·본회 부회장
한국우드워드 회장
일금 30만원

박희백
의대51·본회 부회장
박희백정형외과의원장
진공청소기 2대

최두형
법대51·본회 부회장
성원개발 회장
일금 30만원

이종구
의대51
심장클리닉 원장
건강도서 4백권

한인규
농대52·농생대동창회장
모교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일금 30만원

박맹호
문리대52·인문대동창회장
민음사 회장
아동서적 10SET

배명인
법대52·본회 부회장
(법)태평양 명예 대표변호사
일금 50만원

전동용
수의대52·본회 부회장
한국양돈산업 대표
일금 50만원

이금기
약대55·본회 부회장
일동제약 회장
일동후디스 우유·발효유 4천개

윤세영
법대56·본회 부회장
SBS 회장
42인치 LCD TV 1대

이준용
상대56·본회 부회장
대림산업 명예회장
스쿠터 1대

김찬숙
치대56·본회 부회장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일금 50만원

곽영필
공대56·본회 부회장
도화종합기술공사 회장
일금 50만원

공대식
공대56·본회 부회장
대영테크시스템 사장
일금 50만원

정영채
수의대56·前수의대동창회장
대한수의사회 회장
일금 30만원

정윤환
농대56·본회 부회장
일성화학 사장
일금 50만원

서계숙
음대56·음대동창회장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
일금 30만원

손경식
법대57·본회 부회장
CJ그룹 회장
CJ외식상품권 2人 5매

홍성대
문리대57·본회 부회장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DVD 콤보 2대

하권익
의대57·의대동창회장
마디병원 명예원장
일금 50만원

남정현
공대57·본회 부회장
대우테크 고문
일금 50만원

이세영
약대57·약대동창회장
삼익제약 회장
세코마C 비타민 5BOX

우인성
공대58·본회 부회장
인터비즈시스템 회장
일금 50만원

박성훈
공대58·본회 부회장
모간 사장
일금 50만원

김봉구
미대58·미대동창회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일금 30만원

안성철
법대58·관악회 이사
유니온테크 회장
일금 30만원

허진규
공대59·본회 부회장
일진그룹 회장
일금 50만원

손길승
상대59·본회 부회장
SK그룹 고문
워커힐 외식상품권 2人 5매

조병우
공대59·본회 부회장
유풍실업 회장
일금 50만원

강인구
수의대59·보대원동창회장
대영EEC 회장
일금 30만원

변주선
사대60·사대동창회장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건강 검진권 4매

박영준
상대60·본회 감사
에일컨설팅그룹 회장
일금 30만원

정계영
상대61·관악회 이사
원일전선판매 회장
일금 30만원

이철우
농대61
롯데백화점 사장
롯데백화점상품권 3매

김영대
법대61·경대원동창회장
대성그룹 회장
일금 30만원

김정국
법대61·법대동창회장
열린사이버대 총장
일금 30만원

유승빈
공대63
양지진흥개발 회장
드레곤힐스파 이용권 1천매

오명
공대64·본회 부회장
건국대 총장
일금 50만원

홍용찬
상대64·상대동창회장
우성마리타임 회장
일금 30만원

김휘중
공대64
한국타이어 사장
한국타이어 상품권 3매

김동녕
상대64
한세실업 회장
영화예매권 2人 30매

이윤경
간호대65·간호대동창회장
충무병원 부원장
일금 50만원

박노빈
사대65
삼성에버랜드 사장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10매

홍예표
치대65·치대동창회장
홍예표치과의원장
일금 30만원

김기병
行大院67졸·행대원동창회장
롯데관광 회장
동남아 1人 여행권 2매

김종섭
문리대66·본회 부회장
삼익악기·SPECO 회장
디지털피아노 1대

성기학
상대66
영원무역 회장
등산화 10켤레

현재현
법대67·본회 부회장
동양그룹 회장
스팀오븐렌지 1대

홍석현
공대68·본회 부회장
중앙일보 회장
일금 50만원

장중환
의대69·본회 부회장
장중환산부인과의원장
일금 50만원

김경회
상대70
서울랜드 사장
서울랜드 빅5이용권 30매

최병민
문리대71
대한펄프 회장
깨끗한나라 물티슈 5천개

정충시
공대72·본회 부회장
오미아코리아 회장
일금 50만원

김이환
新大院72·언대원동창회장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일금 30만원

김하준
사대73
해외개발 사장
치약 1백개

이명우
인문대73
레인콤 사장
MP3 플레이어 3대

박명윤
保大院74·관악회 이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일금 30만원

홍석규
사회대75
보광그룹 회장
휘닉스파크 콘도이용권 4매

강길부
環大院76·환대원동창회장
국회의원
일금 30만원

오병권
공대77
태창 사장
금강산샘물 5천병

류진
인문대78·본회 부회장
풍산 회장
일금 50만원

윤재승
법대81
대웅제약 부회장
우루사·코큐텐 각 10통

정팔도
AIP1·본회 부회장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
김치냉장고 1대

김병순
AMP4·관악회 이사
한국구아노 이사
일금 30만원

장경작
AMP33·관악회 이사
롯데호텔 사장
롯데호텔식사권 2人 3매

강보영
HPM1·HPM동창회장
안동병원 이사장
건강 검진권 4매

최병오
AFB3·AFB동창회장
형지어패럴 회장
일금 30만원

이종수
ACPMP1·ACPMP동창회장
현대건설 사장
일금 30만원

김명도
FIP3·FIP동창회장
영진로지스틱스 회장
일금 30만원

임장주
SPARC11·SPARC동창회장
두얼메카닉스 대표
일금 30만원

민명술
AMP42
코스모스악기 대표
하모니카 10대

강현송
AMP53
화진그룹 회장
화장품 3SET

신일산
AMPFRI14
나노카보나 대표
LUX 숯침대 1개

〈일금 30만원〉

◆미대 △이종철59

〈일금 10만원〉

◆인문대 △김기성98 △이재용87 △최태영76 △홍성윤73

◆사회대 △박동영81 △박재완73 △이승무72 △이승훈74

◆자연대 △금종해76 △김남수73 △박영아79 △송세안79 △이선영05 △이성두05

◆간호대 △금명자76 △소형선73

◆경영대 △권영수75 △김상범78 △김한기83 △신동환78 △임태희76 △전용배82

◆공대 △강부건62 △강현석64 △경세호53 △고재홍75 △구자공71 △구자영54 △기 준65 △김근배64 △김기순76 △김무현61 △김병주59 △김석주48 △김선동59 △김성철73 △김영섭76 △김유경68 △김인기54 △김일진54 △김정식54 △김주호58 △김준곤81 △김찬욱55 △노규환55 △독고석84 △문광순60 △문영학65 △문정규52 △문희성57 △민계식61 △박덕칠57 △박준창47 △백만기72 △변응헌66 △부대진59 △서립규57 △서상기65 △서우원61 △서진근53 △선석문68 △선우정호61 △설영화65 △손 욱63 △손동준59 △손무익68 △송명호59 △송병완69 △송진해63 △신동수52 △신동식72 △신윤승74 △신재홍77 △심형윤52 △안사섭60 △안상춘64 △안재휴52 △안철호48 △염사연64 △오병욱57 △우상룡72 △원정수53 △원호영59 △윤 문61 △윤병화58 △윤종용62 △윤팔문57 △이광노47 △이광성66 △이달우48 △이상룡50 △이성원58 △이승훈70 △이영필66 △이정묵50 △이종대57 △이종웅57 △이종호59 △이중성61 △이창건49 △이태동64 △이태수77 △임병주52 △장학순46 △정구충68 △정명식50 △정연세53 △정조섭56 △제해현65 △조병철59 △조복제58 △조상래75 △조창걸59 △조충휘63 △지 순54 △채 철61 △채방은65 △최상오63 △최승철66 △최안분53 △최정길52 △최종명56 △최항순65 △추지석59 △표상기61 △하준환51 △한영철77 △허 환63 △허수웅60 △현희헌59 △홍광표54 △홍선표53 △홍영희54 △홍해남73 △황 현76

◆농생대 △곽영철59 △권명구68 △권오준65 △김병동62 △김성태64 △김성훈58 △김용구57 △김유인63 △김정묵59 △김종대72 △김종훈67 △김진의59 △류기락81 △박만근55 △박영인56 △박정부60 △백창영69 △서정락56 △설동섭53 △신명철63 △양재승70 △오세인55 △오중환56 △우건석55 △이건호67 △이경국78 △이경원61 △이근수54 △이도경56 △이돈구65 △이무근60 △이봉영76 △이원태64 △이정호71 △이환수59 △정태성84 △조진환50 △지근진58 △차성윤57 △한상률72 △한정길63 △허현철80

◆문리대 △강신항49 △강현욱57 △고 건56 △구월환60 △권기옥60 △김경동55 △김기주54 △김두희52 △김병익57 △김석만57 △김진동58 △남상규71 △박무종66 △박영수71 △박영원74 △박용옥55 △박종오55 △서옥식69 △서의규68 △신우식53 △안택수62 △양규모61 △엄병윤60 △염정임63 △오완영59 △유광식58 △윤옥영58 △이 진60 △이경재59 △이계오73 △이덕근54 △이득산57 △이상희70 △이성준64 △이성해61 △이정자50 △이종대69 △임현진67 △임형두57 △장정환56 △전종우67 △정병순58 △정병해49 △조기웅66 △조완규48 △조유전62 △주진우70 △최종덕52 △최흥룡57 △하영준55 △한갑수52 △허종덕63

◆미대 △곽용태61 △이신자50 △이종상59 △주민숙64 △차정아84

◆법대 △강영규48 △곽동헌61 △권영세77 △금진호50 △김경한62 △김관재71 △김기춘58 △김문곤78 △김상희69 △김성길60 △김신행61 △김영무60 △김영일60 △김일권64 △김종일52 △김진억55 △김태경52 △김태우73 △김호룡48 △김환수52 △나대진67 △노신영50 △명동성73 △명호근61 △목요상55 △문성우75 △문희상64 △박기주02 △박성철75 △박원표70 △박인환85 △박정서57 △박종우57 △배석필56 △배용재74 △배재욱64 △서삼영65 △서정석65 △선우종원41 △성시웅77 △송두환67 △송진훈59 △신명균62 △신장순47 △신창호45 △신효헌60 △심재갑52 △안동일59 △안병만60 △양영준72 △여훈구80 △오복동57 △오태환53 △유홍종57 △윤재열50 △윤준원67 △이규오43 △이대순53 △이상근82 △이영기71 △이영범59 △이재천52 △이재후58 △임태유59 △장준철67 △장태규76 △정성진58 △정주석61 △정휘위62 △정희준57 △조대연69 △조정환77 △진 영71 △최경원63 △최기정60 △최상엽56 △최상태58 △최성락60 △최영일59 △최재경81 △최홍건62 △한이봉83 △홍석조71 △황선태66

◆사대 △김관영48 △김동길57 △김명훈49 △김선식58 △김수관70 △김신복64 △김정래53 △김종성57 △김화영57 △민흥기59 △박경서66 △박명학61 △서정선60 △오건주76 △윤용혁60 △윤웅섭61 △이동식72 △이영주52 △이완기45 △이원희71 △이익환64 △장동우72 △장재혁80 △전병일66 △조진현57 △채종항43 △최병주56 △최용준61 △허영섭74 △황선용57 △황채호61

◆상대 △강수헌58 △강종기55 △구정회57 △김남현53 △김대중66 △김성규57 △김영규55 △김영수58 △김완기46 △김의식46 △김종욱63 △김창수66 △남영태65 △문대원71 △박길상68 △박영대56 △박영일59 △박정열60 △박헌두58 △변창기54 △서영택58 △서태식58 △성하현59 △송인상35 △안경태71 △안재동60 △안재천56 △안태호45 △어 준57 △어선선53 △유석기57 △유영일53 △이규성58 △이대원59 △이만순57 △이상근53 △이석우63 △이성태64 △이세근63 △이수익61 △이승우53 △이영서61 △이용우61 △이재원55 △이종열69 △이종휘66 △이진방67 △이진호64 △이한희54 △이항철54 △임채주55 △장기팔56 △전복규56 △정규영65 △정동수63 △정현진71 △정홍술67 △최광현62 △최명재48 △한찬수54 △허남각56 △홍면후46 △홍성주58 △홍영기57 △황동규63

◆생활대 △김성진69 △이의숙56 △황인경70

◆수의대 △신현일57 △엄기선74 △이강남66

◆약대 △공영석57 △김광순59 △김낙두53 △김선중61 △김수경57 △김진우54 △김한길59 △반태환65 △오응준58 △윤도중58 △이경수66 △이계관70 △이상섭50 △이성완63 △이세복64 △이원희68 △장안수63 △조경일64 △차기현59 △최장신61 △홍순언60

◆음대 △이영자55 △이재연92 △조위민59

◆의대 △고건성67 △김규한76 △김민규91 △김서정86 △김승협73 △김영덕64 △김영일90 △김종만51 △김주일44 △노문진90 △민병철48 △민영일59 △박동현70 △박영하46 △박인원76 △박재갑67 △변상현51 △서병태54 △선우대활71 △손근찬52 △신기식79 △신순철62 △오승환56 △유왕성75 △유형래54 △윤정철59 △윤해근70 △은희철68 △이계평59 △이기상73 △이대규53 △이문규75 △장돈식56 △정문성78 △정훈용84 △조강희59 △지삼봉55 △최 용63 △한 헌79 △허봉열60 △홍정곤74

◆치대 △강효식57 △권오임70 △김경중72 △김선영77 △김성수67 △김세진67 △김종철71 △김종훈73 △남동석59 △문일환65 △민병덕64 △박상균66 △박춘영60 △박희운78 △신현철74 △양유식70 △오성진72 △이상철57 △이재현50 △이진규78 △이희주67 △임우하58 △임철중61 △장상헌59 △장영일64 △정용호65 △정종선57 △조종만65 △최낙준72 △하해근85 △한금남83 △홍지원83

◆대학원 △나병만77 △여효성03 △윤옥경75 △조장래82 △황성균71

◆경대원 △장몽인66 △조현국73

◆보대원 △구성회67 △박순영63 △신석우65 △이규한63

◆사대원 △김적승69 △김장식67

◆행대원 △강민구62 △노일숙79 △연기호67 △윤오수95 △윤일균69 △이채호68 △이효계68 △장주호69 △전주식64 △최계순65 △함용빈73

◆AMP △강성모17 △곽중익47 △구학서49 △김관영45 △김석한57 △김완재64 △김혜삼51 △문창복52 △신성우32 △안응수45 △오병제21 △이장오50 △이정대64 △장기봉59 △정광훈47 △정명섭49 △하재준11 △하종근59

◆AIP △고상언11 △금병찬32 △김상화8 △김용태30 △박영식28 △심종덕15 △양 명9 △우영식28 △윤여찬34 △이상호37 △정동진28 △정봉성29 △최평곤32

◆ACAD △권상문45 △권태석60 △김기영49 △김성은30 △김찬회① △김충한18 △노희찬33 △서정권② △이영태55 △이영호53 △이원영11 △이정익34 △정종모25 △조봉현55 △주영순54 △최광주55 △홍양호63

◆SGS △김광두③ △김영대12 △방기석14 △이기채③ △임평환② △정병재⑤ △황용연②

◆APC △윤종아⑨

◆HPM △김광태② △김동오18 △김재영18 △노동일⑦ △류희근④ △박상동② △손재립⑥ △오국진⑤ △이용팔13 △장찬기⑧ △전성혁13 △조길웅14 △최선희17

◆AMPP △오덕영⑧ △장철순⑦

◆AIC △김정구③

◆AFB △김규태① △배성철⑦ △백종수⑦ △심현옥⑤

◆AMPFRI △양준호14 △이병환④

◆ACPMP △김정식③ △탁봉열③

◆GLP △김태일④ △박상준10 △박종태⑥ △신극정16 △윤윤식15 △이원욱11 △임광순⑦

◆ALP △김경일③ △송춘영⑤ △지장국②

◆SPARC △박상학12 △배두식12 △심재성12 △정덕훈⑧ △한영수12

〈이상 10월 19일까지 홈커밍데이 협찬금을 출연해 주신 분, 이후 협찬 동문명단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단과대 동창회장 초청 '개교 원년 찾기' 간담회

"늦은 감 있지만 꼭 해야 할 일" 공감대 이뤄

校史찾기 넘어 관립교육기관 역사 재조명

본회(회장 林光洙)는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단과대학(원) 동창회장과 모교 교수들을 초청해 지난 9월 30일(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과 10월 6일(엔지니어하우스 금룡)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이 운동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 모교 국사학과 李泰鎭교수의 발제가 있었으며 원년 설정 시기, 학내외 의견 수렴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林光洙회장은 "오래 전부터 모교의 개교 원년을 바로 잡아 단과대학 역사를 포괄해야 한다는 동문들의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며 "법대, 의대, 농생대, 간호대 등은 역사가 1백년이 넘었는데 모교는 60년 밖에 안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며, 해외에서 측정하는 명문대 순위에서도 역사와 전통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생대동창회 韓仁圭회장은 "2년 전 농생대 개교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개교 1백주년'이라고 하지 못하고 '농학교육 1백주년'으로 어정쩡하게 붙인 적이 있다"며 "이 문제가 왜 이제까지 논의가 안 됐는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동문들의 뜻을 모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1895년 원년' 의견이 주류

李泰鎭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선말 대한제국기에 근대교육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은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요성이 평가받지 못하고 교사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다"며 "서울대 개교 원년 찾기는 단순한 교사 찾기를 넘어 그동안 등한시했던 근대의 관립고등교육기관의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대가 근대국가 수립기의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들을 모태로 삼지 못한 이유는 △일제 식민주의 역사관에 의한 대한제국기의 부정적 인식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 학부 의학교 등이 과연 대학으로 인정할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대한제국기의 관립학교를 끌어들이면 일제 식민지 대학인 경성제국대학까지 끌어들여야 하는 딜레마 때문이었다.

李泰鎭교수는 "첫째 이유는 극도로 자학적인 역사의식으로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간 역사학계의 노력으로 고종시대의 자력근대화의 성과들이 많이 밝혀진 지금 그런 생각은 오히려 서울대가 일제 식민주의 역사관을 지지하는 결과가 되며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대학들도 우리의 법관양성소나 학부 의학교 수준보다 못한 기관을 출발로 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반문의 대상이 못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딜레마는 우리가 자력으로 이룬 역사를 경성제국대학 때문에 버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이므로 따를 것이 못된다는 설명이다.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숙명여대 등도 조선말기, 대한제국기의 관련 교육기관에서 시원을 찾으면서 일제의 강압으로 부득이 취했던 사항들을 모두 교사의 일부로 끌어안고 있다.

모교 대외협력본부 曺 國부본부장은 "대외협력본부 일을 하며 여러 나라의 대학들을 방문할 기회가 많은데 애매모호한 상태의 기관을 출발점으로 삼는 대학이 허다하다"며 "서울대의 경우 확실한 문서를 통해 법적인 근거가 모두 갖춰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역사 늘리기니, 일제의 잔재를 인정하냐는 등의 내·외부의 비판은 확실한 근거를 통해 잠재울 수 있다"며 "이것은 이데올로기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확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미 군정기의 서울대 초대 총장이 해리 B. 엔스테드란 미국인이고 경성제국대학은 총독부 총무관이었던 핫토리 우노키치란 사람이 초대 총장이었지만 법관양성소는 皮相範이란 분이 초대 소장이었다"며 "학문적인 차원을 떠나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으로서 한국 사람이 초대 소장이었던 법관양성소를 효시로 잡는 게 정서상으로도 정통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후 내년초 발의

역사 원년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 본회 李相赫부회장은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학교 설립 시기인 1895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相赫부회장은 "1946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02호인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제4조(기존 법령의 폐지 보류 규정), 동 법령 제5조(국립서울대학교의 흡수에 의한 기존 학교의 폐지) 규정에 의해 흡수대상 학교인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대학,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업전문학교의 설비, 문서 및 인원은 모두 국립서울대학교에 이관됐다"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흡수된 여러 전문학교 중 그 개교 원년이 가장 오래된 경성법학전문학교 전신인 법관양성소와 경성사범학교의 전신인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된 1895년을 개교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동창회 河權益회장은 "의대의 경우 국가 의료기관인 제중원이 설립된 1885년을 시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세대가 세브란스를 세운 에비슨이 제중원에서 관리책임자로 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중원을 자기네 역사로 편입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에비슨은 일시적으로 고종황제의 부탁을 받아 2년간 일하다 다시 대한제국 정부에 반환했음을 병원사 역사센터에서 발굴한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李泰鎭교수는 "연세대와 분쟁을 떠나 제중원을 교육기관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며 "제중원은 서울대병원 역사의 시초는 될 수 있지만 의사 양성 기능 미비와 학교로서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의대와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모교 원년 찾기 운동에 대한 학내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본회 辛鉉雄부회장은 "서울대 역사 원년 찾기는 우리뿐 아니라 외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룰만한 팩트"라며 "어느 단과대학을 시원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더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고 그에 앞서 학내 신문이나 대외 일간지 등을 통해 재학생, 교수, 동문 사이에 개교 원년 찾기의 당위성을 알리고 뜻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林光洙회장은 "5~6개월 동안 찬반 의견을 회보에 게재한 후 원년을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하고 내년 1학기 초에 정식으로 발의해서 총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적으로 "책으로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相赫·辛鉉雄부회장, 安國正논설위원, 간호대동창회 趙東蘭부회장, 공대동창회 金河哲부회장, 농생대동창회 韓仁圭회장, 미대동창회 金鳳九회장, 법대동창회 金正國회장, 사대동창회 金昌哲상임부회장, 생활대동창회 鄭興淑회장, 수의대동창회 李文漢수석부회장, 약대동창회 李世榮회장, 음대동창회 李鍾一상임부회장, 의대동창회 河權益회장, 상대동창회보 尹可鉉주간, 모교 李泰鎭·曺 國교수 등이 참석했다.

〈南〉

각 대학 개교 원년

〈모교 단과대학〉

- 법과대학(법관양성소) : 1895년 3월
- 사범대학(한성사범학교) : 1895년 4월
- 의과대학(학부 의학교) : 1899년
- 농과대학(농림학교) : 1906년
- 간호대학(간호부 양성과) : 1907년
- 공과대학(경성공업전문학교) : 1916년

〈국내 대학〉

- 성균관대(성균관) : 1398년
- 연세대(제중원) : 1885년
- 이화여대(이화학당) : 1886년
- 고려대(사립보성전문학교) : 1905년
- 숙명여대(명신여학교) : 1906년

〈외국 대학〉

- 하버드대(하버드 목사양성소) : 1636년
- 예일대(칼리지어트 스쿨) : 1701년
- 콜롬비아대(킹스 칼리지) : 1754년
- 스탠퍼드대 : 1891년
- 옥스퍼드대 : 1133년(추정)
- 케임브리지대(케임브리지 교역소) : 1209년
- 동경대 : 1868년
- 와세다대(동경전문학교) : 1882년
- 히도쯔바시대(상법강습소) : 1875년
- 북경대(경성대학당) : 1898년
- 청화대(청화학교) : 1911년
- 싱가포르대 : 1905년
- 홍콩대 : 1912년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지상토론

지난 9월호부터 모교 개교 원년 찾기와 관련해서 모교 법학부 曺 國교수, 교육학과 韓基彦명예교수, 李相赫변호사 등의 기고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朴衡圭동문의 옥고를 싣습니다. 이 밖에도 이와 관련된 동문 여러분의 다양한 고견과 기고를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의 역사 바로 찾기

朴 衡 圭
(정치48-57)
대한민국 헌정회 이사

어느 민족이나 국가든, 혹은 개인의 경우 그 씨족이나 家系가 역사와 전통이 오래 되면 될수록 그에 대해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어떤 조직체나 사회적 結社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 서울대학교의 경우 이제까지 1946년 미군정의 법령에 의해 국립서울대학교로 새 출발한 때를 개교 연도로 삼아옴으로써 그 역사와 전통이 매우 일천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각 단과대학별 연혁을 살펴보면 각각 차이는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그 淵源이 가장 오래된 대학은 법과대학으로서 일찍이 1895년 4월 25일(음력 4월 1일)에 고종의 칙령으로 설립된 '법관양성소'야말로 법과대학의 연원이 되는 원뿌리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법관양성소는 그 후 다소의 변천을 거치면서 상당 기간 계속됐다가 안타깝게도 일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1911년도에 폐쇄되는 비운을 맞았다. 그러나 일제는 1922년도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다시 설립했고, 그 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면서 그 곳의 법학부와 통합됐다가 다시 독립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 1946년 8월 미군정에 의해 국립서울대학교의 한 단과대학인 법과대학으로 통합됐다.

법과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의 중심이 된 모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서울대학교의 일부인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전신격인 '법관양성소'는 서울대학교 전체로 봐서도 그 연원이 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大河의 강물은 여러 물줄기가 모여서 이뤄지지만 그 원천은 가장 먼데서 발원한 작은 한 줄기의 물줄기에서 시작된다. 이때 그 물줄기가 어디서 발원됐든 그것은 그 강물의 원천임에는 틀림없다.

혹자는 서울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이 모체가 되어 여러 고등전문학교를 흡수통합해서 이뤄진 종합대학교인 만큼 일제가 경성제대를 설립한 1926년을 개교 연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은 국립서울대학교가 오늘날과 같은 종합대학교로 출발한 것은 1946년도이기 때문에 그때를 개교 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을 내세운다.(이제까지는 이 주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돼 현재까지 1946년을 개교 연도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 다같이 동의하고 싶지는 않다. 첫째 서울대학교는 경성제대가 모체가 되어 여타 단과대학을 흡수통합해서 설립한 종합대학교는 아니다. 미군정이 1946년 8월 22일 공포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제5조에는 오늘날 단과대학으로 돼있는 기존 각 고등교육기관을 열거한 다음 '이 모든 학교는 폐지되며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것은 곧 서울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모체가 되는 대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과대학이 똑같은 자격과 비중으로 '국립서울대학교'라는 이름아래 하나로 통합돼 그 체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동 미군정 법령을 보면 서울대학교는 그때까지 없었던 대학교를 새로 신설하면서 거기에 기존 고등교육기관들을 흡수통합시킨 신설 대학교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그것은 새로운 대학교의 신설이 아니라 종합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기존 고등교육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운 체제로 개편하고, 거기에 '국립서울대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을 뿐 신설 대학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 대학교에는 그 이전의 역사나 전통이란 하나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각 단과대학들은 장단의 차이는 있지만 1946년 이전에 이미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 역사와 전통을 전부 휴지처럼 저버리면서 이름과 체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시점을 개교 연도로 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파기하는 우거라 아니 할 수 없다.

비근한 예로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등 다른 여러 대학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고려대학교는 보성전문학교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명칭을 바꾼 대학교지만 그 대학교의 개교 연도는 보성전문학교의 개교 연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 고려대학교로 개편하고 개명한 때를 개교 연도로 삼고 있지 않다. 우리 서울대학교의 경우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만일 1946년을 서울대학교의 개교 연도로 규정한다면 이들 각 단과대학이 그 이전에 배출한 졸업자들은 물론, 그 역사와 전통은 동일 대학의 후신인 서울대학교와는 그 學脈이 완전히 단절되고 마는 모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어떤 사실이 이름이나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그 이전의 역사를 無로 돌린다면 이 세상엔 어떤 사실도 역사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서울대학교의 개교 연도를 각 대학이 통합돼 종합대학교로 출발한 1946년으로 삼는 것은 그 역사성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의 개교는 각 단과대학 중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 된 最古의 연원을 찾아 그것을 개교 연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1946년 이전의 각 단과대학 출신자들이나 또는 그 역사와 전통 등이 서울대학교의 동문으로서, 또한 서울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포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서울대학교의 개교는 일제가 경성제대를 설립한 1926년도 아니요, 미군정이 종합대학교로 새로 발족시킨 1946년도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주권하에 우리나라 국왕의 칙령에 의해 국립으로 법관양성소를 설립한 1895년 4월 25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옳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그만큼 유구함을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주권하에 설립된 최초의 국립고등교육기관이라는 民族自尊의 높은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데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학빌딩 건립기금 정성 잇따라

趙弼濟동문 2억원 쾌척

지난 10월 17일 세양주택 趙弼濟(조선항공46-50)회장(사진)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2억원을 출연해 향후 '南湖특지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趙弼濟동문은 당시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나 조선과가 신설됨에 따라 몇몇 동기들과 함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장래에 조선분야 기술자가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선항공과로 전과했다.

조선항공과 1회 졸업생으로 1952년 부산에서 조선과동창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추대됐으며, 1972년 동창회가 진수회로 명명돼 회칙을 만들고 조직을 정비해 1982년까지 회장을 맡을 정도로 모교와의 인연이 남다르다.

1950년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한 이래 제일모직공업 공장장·상무, 한국생산성본부 경북지부장, 새한제지(현 한솔제지)전무, 동서식품 사장·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모교에서 조선공학을 강의한 바 있다.

趙동문의 가족 중에는 남동생 趙光濟(법학56졸)동문, 셋째 딸 趙子永(기악75졸)동문을 비롯해 맏사위 金容彦(상학66-70)동문, 넷째 사위 朴胄澈(의학66-72)동문, 다섯째 사위 李在永(대학원80-82)동문, 여섯째 사위 金日漢(의학73-79)동문, 일곱째 사위 張虎鎭(외교80-84)동문 등이 모교 출신이다.

姜寅求동문 5천만원 출연

지난 10월 23일 보건대학원동창회 姜寅求(수의학59-64·보대원69-71)회장(사진)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 '姜寅求특지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姜寅求동문은 "내년에 개최될 보건대학원 개원 50주년 행사의 공동준비위원장이자 동창회장으로서 미력이나마 모교 발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며 "특히 많은 대학원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건학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가 될 후배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회사인 대영EEC 회장을 맡고 있는 姜동문은 20년간 모교 수의학과 초빙교수로 우리나라 보건·환경분야 강의를 해왔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池憲澤동문 1천만원

지난 10월 31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池憲澤(치의학43-47)고문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했다. 장학빌딩 건립 후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가 설립된다.

〈表〉

본회 朴鷹壽사무총장 임명

사대 졸업 … 수출입은행 본부장 등 역임

지난 11월 1일자로 본회 신임 사무총장에 朴鷹壽동문(사진)이 임명됐다.

신임 朴사무총장은 72년 모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후 충남교육위원회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 인사부 총괄부부장, 노사협력팀장, 연수원장, 인도 뉴델리 사무소장, 감사실장, 중소기업금융본부장, 강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임 許 瑄사무총장은 임기만료로 지난 10월 31일자로 사임했다.

“적십자 정신으로 분열된 사회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

동문을 찾아서

柳 宗 夏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한적십자사 柳宗夏(정치55-59)총재를 지난 10월 24일 오후 남산 앞 적십자사 본사 총재실에서 만났다. 40년 직업외교관을 거쳐 대한적십자사호를 이끌 선장에 취임한 그는 최근 일부 언론과 북한에서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와 논평이 나온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일을 하려면 그 정도의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는 태도였다.

대 담 : 본보 李相起논설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인터뷰가 두 면에 걸쳐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크게 낸다고요? 4분의 1만 내세요.”

– 자연스럽게 포부를 펼쳐 주십시오.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3년입니다.”

– 3년 뒤에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라면 적십자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다가갔다,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저고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총재님은 3년 뒤에 벗으십시오(웃음). 요즘 언론에서 비판이 매섭습니다.

“문제(비판) 제기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외교 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잘 해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비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로 생각합니다.

1996년 북한이 ‘휴전협정은 무효다. 따라서 휴전협정을 준수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가 엄청나게 경색됐죠. 그때 안보수석으로 있으면서 金泳三대통령께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제기를 해야 합니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휴전협정의 서명국인 미국, 중국을 끌어들이고 북한을 오라해서 4자회담을 제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통령은 반신반의하면서 ‘그거 잘 되겠나, 미국 불러오는 것 정도는 몰라도 북한이 오라하면 오겠나. 중국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래요. 하지만 미국, 북한, 중국 모두 설득해서 4자회담을 성사시켰어요. 4자회담이 이뤄진 것은 남북관계에서 굉장한 변화죠. 북한 입장에서 (나한테) ‘저 놈 나쁜 놈이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 지원도 했고요. 물론 제가 ‘黃長燁사건’도 교섭했지만 그것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해결해야 될 일이었죠.”

–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전통을 보내도 안 받아요. 지난 2월에 서신을 교환하고 5월에 식량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회답이 없어요. 나가는 전통문 자체를 수령을 안 해요. 마지막이 2월이에요.”

– 적십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적십자 회비가 어느 때부터 정체예요. 5백억원이 안 넘습니다. 과거에는 적십자가 역사가 깊고 세계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도 일이 되는 게 많았죠. 지금은 적십자 활동분야에도 경쟁 단체가 많아 옛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불행히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남·북간의 깊은 골, 동·서간, 老·少간, 빈·부간의 깊은 불신의 늪이 존재합니다. 우리사회 만큼 분열의 골이 많고 깊은 나라도 드물어요. 이 분열의 골을 메우는 데 적십자의 인간애보다 더 적절하고 효력이 있는 연결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가 큰 만큼 그 해결책도 용이치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높은 차원의 결의와 창의력 그리고 철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드라이빙 포스는 청소년 봉사활동이에요. 이를 활발히 전개해서 사회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적십자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는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이라는 시한성을 가진 과제도 있죠. 그리고 남북이산가족을 연결하는 다른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남북간 여러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내와 이해를 가지면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겠죠.

재난 예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날은 자연적인 재난뿐 아니라 인위적인 재난도 대규모화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생겼을 때도 대응해야 하겠지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인도주의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고통을 나누고 불행을 예방하는 노력은 그 사회 모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드라이빙 포스로 청소년 봉사활동 힘써

경영 정상화 위해 민간기업 마인드 도입

– 내부 직원들간에 관료적인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경영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직원들을 보면서 받은 첫인상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월급이 적다 보니 고급인력이 오래 남아 있지 않고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적십자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퇴직율이 높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뽑고 훈련시켜 놓으면 금방 나가 버리고요. 다른 국가의 적십자 직원들은 국제적인 레벨의 대우를 받으며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경쟁시대에 적십자도 경쟁의 원리에서 필요한 것은 다 수용해야 될 겁니다.”

– 메리트(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필요한 곳은 도입하면 좋죠.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밖에서 더 많은 기부금을 유치해 오지 않겠어요? 그런 직원은 특별히 대우해 줘야죠. 제가 유엔대사로 있으면서 서울대 연구공원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를 유치했어요. 백신연구소는 월급을 많이 주고 일 잘하는 전문가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적십자도 그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직장으로 만들도록 어느 정도의 경쟁체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자신의 집무실에 대해 설명했다. “사무실 근사하죠? 여기가 항상 지저분했대요. 총재실이 사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된 가구에다 뭐 사무실이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전임 李世雄총재가 멋이 있고 돈이 있거든요, 사비를 들여 확 바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뀔 리가 없었죠.”

– 이제 주제를 바꿔서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기억나는 분이 누가 있나요.

“교수님 중에는 閔丙台·李用熙·金成嬉·金斗熙교수 등이 생각나요. 동기로는 미국에서 석학이 된 李埰畛교수, 鄭九鎬 前 KBS 사장, 朴鐘圭 KSS해운 고문, 鄭永儀 前재정경제부 장관. 학자는 8명 정도로 많아요.”

– 동기 중에 정치를 한 분은 없나요. 정치학과는 정치하려고 가신 게 아닌가요.

“없어요. 동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기는 했죠. 입학동기가 ‘정치인이냐, 정치학자냐, 단순히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냐’ 하고요. 입학 당시에 법대를 가면 고등고시 공부를 해야 돼서 싫었고, 경제학과는 상과대학이라 해서 좀 그렇고. 절충하니 정치학과였던 거 같아요. 원래 40명 정원이었는데, 외교학과 정치학과로 나눠진다고 해서 두 배로 뽑았어요. 운이 좋았죠.

당시 성적을 복도에 게시하곤 했는데 李相玉 前외무부 장관과 高 建 前국무총리가 월등히 성적이 좋았어요. 두 사람이 만점에 가까웠었죠.

좀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법대나 다른 대학은 창고에서 공부하는 거다. 학교다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문리대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입학해서 교정에 들어갔는데 라일락이 펴서 향기가 좋았어요. 학교 앞에 다방도 좋았고. 별장이란 다방이었는데 그곳을 특별강의실이라 해서 노상 가서 놀았어요. 정치학과 사람들이 비교적 괜찮았어요. 노트 빌려달라고 해서 안 빌려준 사람이 없었죠. 영문학과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몇 번 안 나가서 필기한 게 없었어요. 그 학과 사람에게 노트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 주더라고요.”

– 관운은 있으신 편이었나요.

“어이구, 뭐, 그냥 그렇죠. 첫 직장은 동화통신사였어요. 기자 일 좀 했죠. 3학년 때 들어가서 견습 떼고는 윗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정당 및 국회 출입기자가 됐어요. 정당과 국회가 괜찮은 게 기사거리도 있고 돈도 좀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어찌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여기 오래 있다가는 마흔 살을 넘길 수 없겠다. 마흔 살 이후 세상이

↗

"문제 제기는 언제나 환영, 능력 발휘할 기회로 삼겠다"

흥미로울 텐데 더 살려면 여기서 발 빼야겠다'해서 일을 그만뒀죠. 그 후 외무부에 들어가 '朴東宣사건'(코리아게이트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 미주국장이 됐어요. 외무부 들어갈 때 목표가 국장이었는데, 국장되고 보니 그만둘 수 있나 차관보는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올라갔는데, 차관을 하고는 장관 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당시에는 차관 중에 장관 되는 사람이 반이 안됐어요. 장관 하려는 사람은 정치적 끈이 있어야 됐으니까요.

차관하는 동안 외무부에 꽤 기여를 했어요. 당시 崔浩中·李相玉장관 시절인데, 장관은 정치를 하고 차관은 살림을 했어요. 당시 정부예산이 평균 10% 올라갈 때 외무부 예산을 24%나 올렸어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도 제가 거의 만들었죠. 청와대에 있을 때 동포재단도 만들었고요."

– 일자리를 많이 만드셨으니 직원들이 안 따를 수가 없었겠죠.(웃음)

"어디든지 밥값은 톡톡히 했어요. 유엔대사 할 때 미국의 유명건축가인 아이오밍 페이란 분에게 부탁해 관저도 지었죠. 그 사람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을 디자인한 분이에요. 그가 계약한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었을 거예요. 보통 1천6백만달러 아래로는 안하는 분인데 나와 1백만달러에 계약을 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유엔 한국대사관저는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겁니다. 서강대 사이버MBA 총장하면서 매년 1억5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했으니 거기서 또 엄청난 경제효과를 누릴 겁니다. 적십자에서도 큰 도움을 주고 나가야죠."

–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요.

"가능성이 보였어요. 표면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요. 그런데 딱 보니 해볼만한 거예요. 말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육상이 신통치 않으니깐 육상 인기를 올려야겠다, 월드컵을 유치해 4강까지 올라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 축구 붐을 일으키는데 일조하지 않았느냐. 육상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한국 육상이 형편없지만 기회를 주면 육상 붐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유럽은 육상 산업이 포화상태다. 더 이상 봐줄 관중이 없다. 이제 아시아로 와야 된다. 아시아에 인구도 많고 돈도 많다. 육상 인더스트리를 만들려면 우리에게 유치 기회를 달라. 중국은 올림픽 때문에 안되고 일본 스포츠는 전통적으로 우리 다음이니 우리에게 맡겨달라.'

이런 식으로 집행위원들을 설득해 나갔죠. 개인적으로 얼굴 알고 하니깐, 손잡고 '너만 믿는다' 그랬죠. 또 그때 보니깐 러시아와 유럽간 갈등이 있더라고요. 러시아는 스폰서십에 7천5백만달러, 우리는 1천5백만달러 걸었어요. 그런데 25명의 집행위원 중 18명이 우리 손을 들어줬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 됩니다."

– 적십자에서도 일 내실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들어가니깐, 뭐 하나는 할 것 같다'고."

– 좌우명은 무엇인지요.

"밖에 나가서 대접을 받으려면 스스로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나라의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당당하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었죠. 서양속담에 '당신이 눕지 않는 한 남이 당신 위를 타 넘어 갈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유엔대사 시절 미국측 초청으로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테이블 배정문제로 강하게 항의한 적이 있어요. 제 자리가 3번 테이블에 있어서 테이블 명단을 봤더니 2번 테이블에 일본과 중국의 유엔 부대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한국 유엔대사를 무시하고 부대사를 2번 테이블에 배정해 놨더라고요. 이걸 문제로 제기해야겠는데, 남의 집에 밥 먹으러 가서 테이블 배정이 나쁘다고 항의하기가 그렇잖아요.

국제백신연구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강국도 외교 결례땐 반드시 사과 받아내

하지만 개인 柳宗夏가 아니고 대한민국 대사니깐, 다신 그렇게 대접받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행사 후에 참사관에게 지시해서 미국 유엔대사관에 항의 전화를 하라고 시켰어요. '우리 대사께서 너희는 seating arrangement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라고 한다' 그랬더니 '우리는 룰이 없다. 친한 사람끼리 옆에 앉힌다' 그러더래요. 질문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시를 내렸죠. '우리 대사가 그러는데, 유엔은 알파벳 순으로 앉히는 것이 관례다, 이게 유엔에서 중요한 룰이고 미국이 호스트 국가로서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유엔 룰을 무시하고 우리 대사를 그렇게 앉히면 어떡하냐'고요. 미안하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 답변만으로는 안돼서 미국 대사에게 직접 말하라고 했어요. 당시 올브라이트가 미국 유엔대사였어요. 올브라이트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하더군요. 이후 오히려 올브라이트와 아주 가까워졌고, 그가 국무장관 할 때도 같이 많은 일을 했죠. 사람과 사람관계는 저쪽에서 밟으려고 할 때는 밟아도 괜찮다 할 때 밟는 거예요. 밟아서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안 밟거든요.

길을 가다가 후배들이 인사를 안 하고 가면, 반드시 그 후배의 상관한테 전화합니다. '그놈 불러서 柳宗夏 아는지 물어 보라. 안다고 하면 나한테 알려 달라. 그 놈 버릇없는 놈이다. 모르고 인사 안 하는 것은 괜찮지만, 알고 인사 안 한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반드시 짚고 넘어 갑니다. 그 후배에게 직접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말하는 것은 柳宗夏란 사람의 특성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소문내는 효과가 있어요. 저 선배한테는 예의를 안 지키면 화낸다 하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죠.

이걸 金泳三 前대통령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분은 누가 돈 먹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말 안 하고 꼭 부하한테 시켜서 주의를 줘요. 한번은 국방부에서 무기 수입하는데 이권이 개입됐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게 됐나 봐요. 당시 안보수석일 때인데, 국방부 장관을 만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하라' 그래요. 본인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안보수석인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은 나보고 소문내라는 거거든요.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웃음)"

– 서울대에서 특강을 하신다면 젊은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는지요.

"인간의 기본을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내가 세상을 많이 돌아 다녀 봤는데, 우리가 젊을 때 선배들이 해준 이야기 중에서 오랫동안 남는 이야기는 도움 되는 게 있다고요. 그 순간 흥미로운 것 보다는요. 지나고 보니깐 참 중요하더라, 그런 것을 우리 나이든 사람이 전해주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인간 사회의 기본이 뭐다'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요."

– 평생 사시면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조상 중에 柳成龍선생님이 계십니다. 공무원 하면서 기본이 된 것은 하회 柳씨 자손이라는 것, 가문에 욕을 먹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난리 중에 명나라로 도망가려는 왕에게 '강을 넘으면 조선의 왕이 아니다' 그랬대요. 국가의 존엄, 왕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요. 징비록에 보면 柳成龍선생의 본받을 점이 참 많아요. 그 분은 비천을 따지지 말고 자리를 줘라. 그래서 평민이지만 장수를 만들고 노예지만 좋은 장을 만들었어요. 둘째는 사람을 잘 써라. 이순신을 수군으로 발탁한 것도 이분이죠. 또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사들에게 월급을 줬어요.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여담인데, 그때 보니깐 소금을 월급으로 줬더라고요. 우연인지 서양에서 솔저(soldier)가 솔트(salt)에서 나왔어요. 서양에서도 군비로 소금을 줬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한했을 때 제가 안내를 했어요. 안동을 방문하면서 柳成龍선생 일화와 풍수지리에 대해 설명해 줬죠. 柳成龍선생이 영의정을 지내고도 대단히 어렵게 말년을 보냈다고 했더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서양에서는 그 정도 직책 마치면 잘 사니깐. 이해도 못하고 동의도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세상 사는데 등대 같은 분이죠."

인터뷰 초반 다소 지루하게 이어지던 柳총재와의 만남은 그가 50년 전 학창생활을 기억해내면서 활발하게 전개됐다. 인터뷰 정리를 막 끝낼 즈음 필자는 이양하의 '청춘예찬'을 떠올렸다. 젊음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정리=金南柱기자〉

의과대학동창회

모교에 의학도서 2백권 전달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함춘미술전, 도서기증식, 골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동문간 친목과 모교 발전을 도모했다.

지난 10월 13~23일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회관 건립 6주년을 맞이해 열린 함춘미술전에는 17명의 회원이 서예, 서양화, 사진작품 총 34점을 출품해 동문간 문화교류의 장을 펼쳤다. 특히 13일 열린 개막식에는 李吉女명예회장, 河權益회장, 任廷基학장 등이 참석해 미술전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술전 개막식에 이어 동창회 학술연구재단(이사장 河權益)은 의학도서관에서 도서기증식을 갖고 1천5백만원 상당의 의학도서 2백7권을 모교 의대 도서관(관장 徐廷旭)에 전달했다.

한편 26일 인천그랜드CC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해 70명의 동문들이 즐거운 라운딩을 가졌다. 이날 경기결과 朴容昡(62-68)·申英秀(63-69)·黃熹英(82-88)동문이 각각 시니어부, 일반부, 여성부 우승을 차지했으며, 각 부별 메달리스트에는 全炳斗(62-68)·姜鎭模(90-96)·李吉女(51-57)동문이 올랐다.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

공대·농대 골프 우승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金錫來)는 지난 10월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Palm Hill 골프장에서 동문 및 가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합계 4백22타를 친 공과대학과 농과대학이 단체전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 시상에서 메달리스트에 78타를 기록한 文樹東(응용화학72졸)동문, 1위에 金美淑(화학교육80-84)동문, 2위에 白漢美(수학교육83-87)동문, 3위에 李炯坤(식품공학82-89)동문이 올랐다. 또 롱게스트에 무려 3백7m를 친 김호곤(임산공학95-99)동문, 니어리스트에 5m 거리에 공을 안착시킨 鄭世溶(임산공학87-91)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여성 동문 모두 순위에 오르는 진기록을 남겼으며, 시상식 후 가진 뒷풀이에서 오는 12월 4일 송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耳順테니스회

원로동문 노익장 과시

60세 이상 테니스 동호인으로 구성된 耳順테니스회(회장 姜信玉)는 지난 10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제56회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팔순조 : 우승 全兢烈(토목공학45-48)·金明煥(의학46-51)동문, 2위 金善吉(경제45-52)·李文炯(약학47-50)동문, 3위 馬景錫(화학공학45-48)·趙東三(농학49-54)동문 **▲고희조 :** 우승 姜信玉(법학56-61)·車載浩(심리52-56)동문, 2위 韓榮成(전문기상59-63)·崔鳴鍾(체육교육56졸)동문, 3위 權五均(경제49-53)·金行元(치의학52-56)동문 **▲이순조 :** 金敎成(전기공학51-55)·申英植(체육교육60졸)동문, 2위 高相睦(상학53-57)·李炳允(치의학53-57)동문, 3위 鄭智榮(불문56-61)·李慶佑(체육교육61-65)동문.

상과대학동창회

7회 바둑대회 개최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澡)는 지난 10월 3일 서울 서초동 금연기원에서 제7회 동문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1백여 동문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은 24회 동기회가 차지했으며, 개인전 A조 1위에 尹同鉉(국제경제82-89)동문, B조 1위에 李澄錫(상학57-63)동문이 각각 올랐다. 최다참가상은 23명이 출전한 19회 동기회에 돌아갔다. 이번 대회를 위해 코오롱그룹 羅公默(상학56-61)고문과 나노하이브리드 朴世臣(경제61-68)부회장이 금품을 협찬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 우승 24회 동기회(金相男·延健昊·張仁相동문), 2위 14회 동기회(孫浩睦·錢章源·洪性仁동문), 3위 22회 동기회(趙源玖·洪龍澡·黃光勳동문)

▲개인전 A조 : 우승 尹同鉉동문, 2위 任英彬(무역80-84)동문, 3위 張泰翼(상학66-70)동문

▲개인전 B조 : 우승 李澄錫동문, 2위 李泰鉉(상학66-70)동문, 3위 李桂洪(경제55-59)동문.

상대 17회 산악회 회원이 미시령휴게소에서 기념촬영

상대 17회 산악회

백두대간 종주 완료

상대 17회 산악회(회장 金崇子)는 지난 10월 11일 백두대간 종주를 마쳤다고 밝혔다.

산악회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진부령에 이르는 대간을 77개 구간으로 나눠 지난 2004년 12월 산행을 시작해 3년 10개월만에 완주했다. 대간의 실제거리는 1천2백40km이지만 산행 시발점부터 대간 본 코스까지의 접근과 하산거리까지 합하면 산악회가 걸은 총 거리는 1천6백여 km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백두대간 종주에는 41명이 참가했다. 산행에 참가한 朴定樹(경제59-66)동문은 "대간을 완주한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68세로 같은 규모의 어떤 단체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젊은 사람들은 보통 1년 내지 1년 반만에 끝내는 대간 종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산행구간을 짧게 잡아 산행 횟수를 늘리고 매월 2회 산행과 혹서와 혹한기에는 근교 산행과 원정 산행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악회는 앞으로 남아 있는 50여 개의 1백대 명산을 순차적으로 등반할 계획이다.

보대원동창회

12월 4일 송년회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姜寅求)는 오는 12월 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범대학동창회

12월 4일 송년회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오는 12월 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동지부 黃在文회장(좌로부터 두 번째)과 30여 동문이 한자리에 모였다.

안동지부동창회

추계 정기모임 가져

안동지부동창회(회장 黃在文)는 지난 10월 6일 안동시내 경복궁 한정식당에서 안동대 李熙載(무역69-77)총장 등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정기모임을 가졌다.

黃在文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신 가운데에도 학교와 사업장에서 많은 선후배 동문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정기모임을 늘리고 함께 취미를 공유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부동창회

남원지역 고적지 탐방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10월 25일 李相七(법학52-56)고문, 金聖吉(법학60-64)회장, 殷茂一(중문59-65)수석부회장 등 동문 가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 남원시와 지리산 일대를 둘러보는 고적지탐방 여행을 다녀왔다.

전주 공설운동장에 모인 동문 가족들은 전주대 李南植(농화학74-78)총장이 스폰서한 버스를 타고 지리산 실상사에서 휴식을 취한 뒤 우석대 역사문화관광학과 조법정 교수의 해설과 함께 남원시에 위치한 황산대첩비, 만복사지, 광한루 등을 둘러봤다.

참석자들은 내년에도 역사전문가를 초빙해 전북지역의 숨은 명소들을 탐방하는 의미있는 친목모임을 가질 것을 다짐했다.

전북지부동창회는 오는 1월 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전주시내 중식당 백리향에서 신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지부동창회

등산·사물놀이로 단합

부산지부동창회(회장 宋圭政)는 지난 10월 19일 경남 양산시 영산대학교 잔디광장에서 동문 및 가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동문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1부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관악산우회 鄭文鎔(독어교육72-76)회장의 인솔로 천성산을 등반했으며, 權鍾大(치의학72-78)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풍물한마당 순서를 통해 인간문화재인 이화풍류원 박지영 원장과 함께 사물놀이, 탈춤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다참석상은 45명이 참가한 공과대학에게 돌아갔다.

이번 행사를 위해 李龍二(무역63-69)감사가 등산용 컵 2백개와 등산화 40켤레, 鄭翼株(전기공학68-72)부회장이 전자식탈취기·공기청정기 각각 10점, 영원무역 成耆鶴(무역66-70)회장이 티셔츠 2백장, 신라대 權達述(조소62-66)교수가 1백50만원 상당의 조각작품 1점 등을 협찬했다.

GLP동창회

12월 19일 송년회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辛東烈)는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서 80여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친목 등반 모임을 가졌다.

동창회는 오는 12월 19일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송년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南〉

수의대동창회

신임 회장에 李角模동문 선출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鄭英彩)는 지난 10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스코필드홀에서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시상, 총회, 특강, 기금명판 제막식, 기별 동기 모임 순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鄭英彩회장, 모교 朴龍浩학장을 비롯해 1백여 동문 가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좌로부터 李角模·李炳天·鄭英彩동문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동물약품 업체인 동방 李角模(수의학64-69)대표를 선출했다.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은 재미수의대동창회(회장 承元杓·수의학73-77)와 마야출판사 林東主(수의학74-78)대표에게 수여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李成植(수의학70-75)소장과 具滋弘(수의학63-67)동물병원장, 동창회 尹政熙(수의학82-86)총무는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81학번 동기회(회장 朴永燦)에서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8백만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양돈산업 全東龍(수의학52-56)대표, 전임 鄭英彩회장, 신임 李角模회장, 롯데햄 林鍾皓(축산74-80)대표, RNL바이오 羅廷燦(수의학82-86)대표, 광동제약 崔誠元(경영88-92)대표, 김정문알로에 최연매(AMP 61기)대표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서 금품을 협찬했다.

기계동문회

李俸柱회장 선임

기계동문회(회장 崔昇喆)는 지난 10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신공학관 105호에서 제42차 정기총회 및 캠퍼스 투어·실험실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관악산 등반, 축구대회에 이어 열린 총회에서 기계항공공학부 3학년 재학생 김지권·김지섭 군에게 각각 장학금 2백50만원을 지급했다. 또 기계항공공학부 李愚日 학부장에게 모교 지원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俸柱(67-71)수석부회장을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은 26회 동기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하기로 했다. 감사에 鄭泰承(66-70)·李炳浩(68-72)동문을 선출했다.

신임 李俸柱회장(右)이 崔昇喆 전임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총회를 마친 후 이날 참석한 동문 가족들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 등 실험실을 돌아봤으며 규장각, 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또 동문 자녀들이 참여해 보호장치를 설치한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최단 시간에 10m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Egg Drop Contest를 갖기도 했다.

약학대학동창회

27회 동창의 날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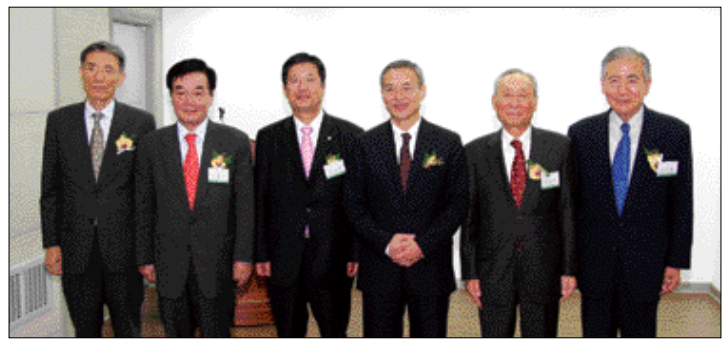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世榮)는 지난 10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제27회 동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37회 동기회(회장 張錫胤)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李禮植·李金器명예회장, 李世榮회장, 모교 徐永鉅학장, 元喜睦국회의원, 대한약사회 金 龜회장, 일본지부 고다케 데쓰로 원로동문을 비롯해 3백여 동문 가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15회 동기회에서 가족을 포함해 30명이 참석해 최다 참가 동기회로 상금 30만원을 받았다.

이날 모임은 개회식, 규장각·박물관 투어, 점심 식사,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李世榮회장이 徐永鉅학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일본지부 고다케 데쓰로 동문이 동창회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레크리에이션 게임 중 '도전 골든벨'에서 郭恩京(약학88-92)동문이 1등을 차지했으며, 경품대상으로 李世榮회장이 협찬한 드럼세탁기는 徐浚錫(약학57-61)동문에게 돌아갔다.



좌로부터 鄭運經·全烘奎·姜吉夫·金基浩·金秉麟·金利煥동문

환대원동창회

'자랑스러운 동문' 5명 시상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姜吉夫)는 환경대학원(원장 金基浩)과 함께 지난 10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82동에서 '동문 초청의 밤'을 열고 동창회 발전과 모교를 빛낸 기후변화센터 高 建(정치56-60)이사장, 이영미술관 金利煥(환대원68-70)관장, 삼환 金秉麟(토목공학56-60)고문, 진흥기업 全烘奎(SGS 3기)고문, 에코바이오 鄭運經(SGS 4기)대표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여했다.

환대원 교육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姜吉夫회장, 金基浩원장 등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행사에 앞서 동문들은 환경대학원 1~4층 복도에 전시된 환경계획·설계 작품 70여 점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전에는 '한국의 국토 도시 환경과 공공계획 : 역사적 성찰과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환경대학원은 1968년 행정대학원에 도시지역계획학과가 설치된 것을 기점으로 올해 만 40년이 됐다. 그동안 1백40여 명의 박사와 1천9백여 명의 석사를 배출했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元 恩 敬 作

'염원1', 화선지, 먹 아크릴, 79×57cm, 2008.

〈작가약력〉

▲76~80년 모교 회화과 졸업
▲07년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졸업
▲95~08년 개인전 5회
▲현재 한국서예협회 초대작가, 한국문인화협회 이사, 대전대 출강

기상학과동창회

학과 설립 50주년 행사

기상학과동창회(회장 全鍾甲)는 지난 10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학과 설립 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全鍾甲회장, 모교 자연대 吳世正학장, 鄭昌熙·玄正峻명예교수를 비롯해 2백80여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동창회는 학과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50년사를 발행하고 모교 발전기금에 1천만원, 한국기상학회(운재학술상)에 1천5백만원을 기부했다. 또 故 金聖三명예교수 추모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기상학과동창회는 현재 1천여 동문이 회원으로 있으며 매년 가을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회장으로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全鍾甲(천문기상64-58)교수, 부회장으로 대웅ENC 李鍾大(천문기상69졸)대표, 尹一熹(대학원83졸)동문, 웨더프리 趙錫俊(기상학과73-77)대표, 총무로 모교 許昌會(기상82-86)교수, 간사로 文昊權(대기과학89-96)동문이 수고하고 있다.

해양학과동창회

모교에 발전기금 전달

해양학과동창회(회장 方仁權)는 지난 10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1백5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학과 설립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관악사 운동장에서 명랑운동회를 시작으로 추억의 장소 방문, 만찬 및 기념행사 순으로 이어져 저녁 9시 무렵 마쳤다.

교수회관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동창회는 모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趙完圭(생물48-52)·韓相復(물리59-63)·李錫祐(물리교육50-54)·朴炳權(지질60-64)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朴龍安(지질57-61)·沈載亨(식물58-63)·鄭鍾律(지구과학교육59-65)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方仁權(해양75-79)회장, 지오시스템리서치 金鴻善(해양77-81)대표, 1기 동기회, 한국해양연구원 등에서 금품을 협찬했다.

금속동창회

23회 금속의 날 성황

금속동창회(회장 崔翔五)는 지난 10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제23회 '금속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崔正吉명예회장, 崔翔五회장을 비롯해 2백여 동문 가족이 참석해 즐거운 게임과 음식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崔正吉(52-56)명예회장, 崔翔五(63-67)회장, WEMS 朴熹奭(53-57)회장, 대호산업 兪龍善(57-61)대표, 일진그룹 許鎭奎(59-63)회장, 크로바스포츠 孟 涉(59-65)대표, 한국인덕터썸 코리아 金泰熙(65-69)대표, 한국Foseco 李貞錫(67-71)대표, 일진소재 金潤根(71-78)대표, 포스코 기술연구소 權五俊(68-72)소장, 12회 동기회, 21회 동기회 등에서 금품을 협찬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진행된 테니스 경기에서 金學世(공업교육65-69)·孫光碩(대학원93-95)동문조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鄭弘溶(64-68)·黃農文(77-81)조가 2위에 올랐다. 〈南〉

미술대학동창회

총동문전에 6백30여점 출품

개막식에 참석한 모든 동문을 한 줄의 끈으로 이어 하나임을 강조하는 테이프 커팅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미술대학동창회(회장 金鳳九)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미술관에서 개교 62주년 기념 동문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3백50여 동문이 6백30여 점의 회화, 조각작품을 출품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시 작품을 경매에 붙여 판매 금액의 50%를 미대동창회, 모교 발전기금, 총동창회 장학빌딩 기금으로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나머지 50%는 작가의 몫이다.

정확한 판매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이 1백만원부터 경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모두 팔렸을 경우 총 6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판단된다.

金鳳九회장은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모교와 동창회 기금 확충은 물론 모교 발전을 위한 미대 동문들의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됐고 일반인들에게 작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 미술문화 저변 확대에도 미약하나마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5일 개막식에 참석한 본회 林光洙회장은 "재작년에도 동문전에서 조성된 기금을 모교 발전기금과 장학빌딩 내의 전시실 개설 비용으로 쾌척해 주셔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올해도 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며 30만 동문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孫一根상임부회장의 건배 제의가 있었으며 이날 개막식에는 본회 辛鉉雄부회장, 朴英俊감사, 李慶衡논설위원, 음대동창회 徐桂淑회장, 모교 權純亨명예교수, 자연과학대학 吳世正학장, 사회과학대 林玄鎭학장, 미술대학 崔仁壽학장, 鄭馨民미술관장을 비롯해 3백여 동문이 참석해 작품을 감상하며 경매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李種福(응용미술62-66)·李明姬(회화68-72)·李庚烈(응용미술69-73) 동문 등이 기념품을 협찬했다.

SGS동창회

지속가능 '그린장학금' 신설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承漢)는 지난 9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제1회 그린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석사과정 중인 강민규·김민희·임혜연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그린장학금은 단순히 성적우수자에게 지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수혜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해 성과를 측정한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면 추가로 연구과제 수행비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련 정책수립기관에도 전달해 정책 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로니에회

남산 단풍길 걷기 행사

문리대 64학번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는 지난 10월 23일 동국대 任敦姬(고고인류64-68)교수 초청으로 서울 남산 단풍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

가을을 재촉하는 부슬비가 내리는 날이라 만발한 남산 단풍은 한결 운치가 있었고, 하산길에 남산 민속촌을 들러 서울시 지명사전 편찬위원인 李宇鎔(정치64-68) 동문의 해설을 들었다.

이날 특별히 제주도에 거주하는 權武一(철학64-68)동문 부부가 참석했으며, 미주동창회 李大永(고고인류64-68)사무총장 등이 축전을 보내왔다.

이번 행사에는 具炓列(영문)·權武穗(정치)·金淑子(국문)·宋錫亨(언어)·安光允(영문)·林雲峰(미학)·張錫準(사회)·鄭明洙(미학)·鄭昭盛(불문)·車進道(외교)·許瑄(정치)동문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호대학동창회

홈커밍데이 행사 개최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李倫京)는 지난 10월 14일 졸업 30·40·5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모교로 초청해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관악캠퍼스 규장각·미술관 견학, 환영 오찬,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박물관 관람, 기념 학술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미국을 비롯해 국내외 각지에서 모인 1백여 동문들은 새롭게 바뀐 모교 교정과 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모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모교 투어 후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학술대회에는 호주에서 노인간호사로 일하는 李和淑(간호74-78)동문, 미국에서 보건간호사로 일하는 李鎬珍(간호74-78)동문 등이 발표자로 나와 해외의 노인간호시스템과 전염병 보건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AMPFRI동창회

한마음대회 3백명 참석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尹煥植)는 지난 10월 5일 경기도 일산 서울YMCA 일산청소년수련원에서 3백여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尹煥植회장, 모교 보건대학원 鄭海元원장, 보대원동창회 姜寅求회장, 청소년보호위원회 朴明潤위원장, 한국외식정보 박형희 대표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치어리더의 경쾌한 춤에 맞춰 몸을 푼 동문들은 동·서·남·북 4개팀으로 나눠 축구, 족구, 탁구, 배드민턴 등의 경기에 참여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동문 가족 전원이 참여해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尹煥植회장이 3백만원, 주형국(15기)감사가 1백만원을 협찬했으며 강정묵(9기)·김재원(17기)·곽보현(20기)·김혜경(23기)동문 등이 음식을 제공했다. 그밖에 권태균(6기)·김종진(22기)·이오훈(23기) 동문 등이 40인치 LCD-TV, 와인 냉장고 등 물품을 협찬했다.

기독동문회

3회 조찬기도회 열어

기독동문회(회장 李大公)는 지난 10월 16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 모교 李長茂총장, 기독동문회 李大公회장·金相福상임회목, 모교 기독교수협의회 朴聖炫회장·비전센터 건축추진위원회 尹桂燮공동위원장, 成耆虎 前 성결대 총장, 세종병원 朴永寬이사장, SBS예술단 金正澤단장을 비롯한 1백여 동문들이 참석해 모교 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南〉

제11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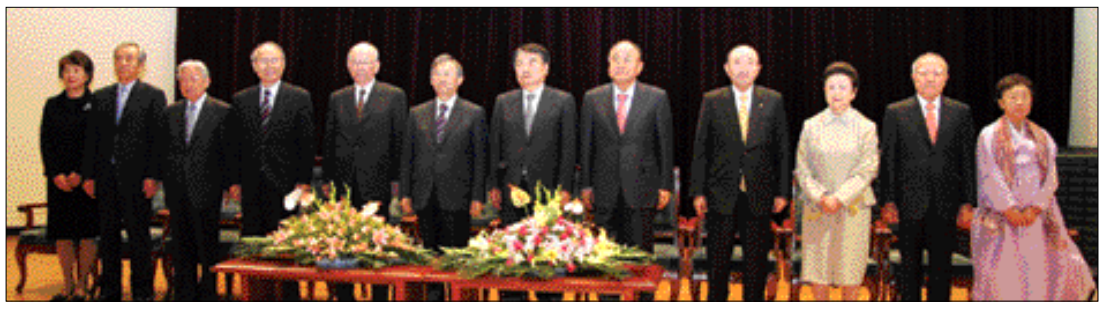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 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09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7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702-2233 · 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9년 3월 20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국민 여망인 노벨상 프로젝트 추진”

표창장·‘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여



개교 62주년 기념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교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기획담당관실 李洙子행정주사 등 62명이 30년 근속, 학생과 具滋洋기능직 공무원 등 79명이 2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또 관악봉사상은 이우창(영어영문학과, 나눔실천단)·박의현(외교학과, 장애인권연대사업팀)·윤지선(생명과학부, 생명과학부 봉사동아리 HAT)·정용수(경영학과, 강남청소년쉼터 교사)·이승학(의학과, 송촌의료봉사회)학생에게 수여했으며 각각 학업장려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재학생들의 봉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 결과, 전기공학부 이우영 군이 ‘사랑을 가르쳐 주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 교육학과 최예슬 양이 우수상, 외교학과 안미가 양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날 제1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학교법인 인제학원 白樂院이사장, 모교 趙 淳명예교수, 본회 林光洙회장, 포스코 李龜澤회장을 선정, 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19면 수상소감 참조〉

李長茂총장은 기념사에서 “무엇보다 서울대학교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벨상 프로젝트(SNU Nobel Prize Project)’를 추진하겠다”며 “일본과 중국이 벌써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내고 있는데 교직원, 동문, 독지가들간 긴밀한 지원망을 구성해 용의주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모교 교수와 졸업생들이 국민적 여망인 노벨상 수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기념사 요지 참조〉

權彝赫전임총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들 앞에는 기필코 풀어야 하는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Vision 2025’의 달성과 ‘모교의 법인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현안목표”라며 “이와 같은 시점에서 李長茂총장과 林光洙총동창회장을 모시고 있는 현실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축사 요지 참조〉

이날 세계대학총장포럼에 참가한 대학 총장들이 함께 한 오찬 행사는 도쿄대 고미야마 히로시 총장의 인사와 朴奉植전임총장의 건배사로 진행됐으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본보 논설위원, 모교 보직교수 등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李長茂총장 기념사 〈요지〉

대학조직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조개혁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성공을 가져온 조직, 제도, 규제는 이제 효율성을 잃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시대의 성공을 이끈 제도를 고쳐야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이른바 ‘성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완수하는 데에는 개방성, 유연성, 수월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장으로서 제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율성은 대학조직의 개방성, 유연성, 수월성을 높이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대학들이 당면한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대학은 이에 적합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학의 자율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이며,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도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서울대학교의 자주적 역량이 조화롭게 결합된 실질적인 대학 법인화야말로 세계적 수월성과 인류를 향한 책임성을 모두 갖춘 ‘미래의 대학’을 구축하는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인 것입니다.

세계의 대학들은 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 50위 안에 들었다고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닙니다. 총장으로서 저는 남은 재임기간에 서울대학교를 ‘세계의 지식허브’로 만드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서울대학교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서울대 노벨상 프로젝트(SNU Nobel Prize Project)’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이 벌써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내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교직원, 동문, 독지가들간 긴밀한 지원망을 구성해 용의주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서울대 교수와 졸업생들이 국민적 여망인 노벨상 수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장기적 기획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세계의 대학,’ ‘세계의 지식허브’로 만들기 위해 우리 서울대인 모두 힘을 합쳐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아갑시다.

權彝赫전임총장 축사 〈요지〉

그동안 서울대학교는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 선정 ‘2008년 세계 2백대 대학평가’에서 50위를 차지하고 SCI(과학기술논문색인) 논문 지표에서는 24위를 차지해 ‘세계의 대학’으로 한걸음 더 앞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희망과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대학평가에서 2005년에 93위, 2006년에 63위였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땀과 정열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 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존경하고 있는 하버드대 제21대 총장인 Charles William Eliot 박사에 관해 한 토막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1869년부터 1909년까지 40년 동안 하버드대 총장을 지냈던 엘리어트 박사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수학자이고 화학자였으며 명문대학 총장 중에서는 최연소자였고 미국의 대학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1636년 J. Harvard 목사가 세운 하버드대는 2백33년 동안 평범한 지방대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869년에 총장에 취임한 엘리어트 박사는 오늘날의 하버드대, 즉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세계 최고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광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1백39년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총장직을 떠나면서 남긴 이임사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갈 길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언제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더불어 행복과 불행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기르는데서 교육의 진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교의 앞날에 영원한 영광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축사를 마칩니다.

제4회 ‘서울대 교육상’ 시상

權在一교수 등 5명 선정

모교는 지난 10월 16일 관악캠퍼스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서울대 교육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수상자는 언어학과 權在一(언어76졸)교수, 국사학과 宋基豪(국사75-81 모교 박물관장)교수, 심리학과 崔仁哲(심리88-92)교수, 물리천문학부 金斗哲(전자공학66-70)교수, 화학생물공학부 李志華(응용화학68-72)교수 등 5명이다.

모교는 지난 2005년부터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대 교육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6명이 수상했다.

이 상은 5년 이상 재직한 교수 중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성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에게 주어진다.

또 수상자에게는 연구비 1천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첫 ‘서울대 학술연구상’

琴章泰교수 등 5명 수상

모교는 지난 10월 30일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올해 처음 제정한 ‘서울대 학술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수들의 학술·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모교를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이 상의 첫 수상자는 종교학과 琴章泰(종교62-66)교수, 경제학부 李 根(경제79-83)교수, 물리천문학부 金修奉(물리79-83)교수, 기계항공공학부 金承祚(항공공학69-73)교수, 약학과 金相建(제약78-82)교수이다. 〈榮〉

제1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프로필·수상소감

교육·의료계 등 다양한 활동

"겸손·관용의 노력 기울이길"

인제학원 白樂晥이사장

白樂晥이사장은 1951년 모교 의과대학 졸업 후 1962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61년 백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의 인제대학교와 백병원이 있기까지 교육·의료 및 사회봉사에 헌신해왔다.

白이사장은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제1기 교육개혁위원, 남북정상회담 방북 수행단원을 역임하면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베트남 구순열 환자 수술,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북한 수액공장 건립 지원 등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남북 및 국가간 우호증진과 교류협력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수상경력으로는 1999년 제7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2001년 함춘대상(의료봉사부문)·상허대상(의료부문), 2002년 국민훈장 무궁화장(교육부문) 등이 있다.

수상 소감 〈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모교 가족들 특히 학생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선망의 대상이 질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교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 2백대 대학 가운데 50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도쿄대는 19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4명의 일본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문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오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대인들이 지금이라도 크게 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생 그리고 교직원으로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다면 아마 모교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대신 우리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좋지만 질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를 갖고 관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경제학 등 학술발전에 기여

"정성 다해 모교 은혜에 보답"

경제학부 趙 淳명예교수

趙 淳명예교수는 1949년 모교 상과대학 졸업 후 1967년 미국 UC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모교 교수로 부임해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서울시 초대 민선 시장,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평생 이룩한 학문적 성취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1972년 제2회 이코노미스트상(매일경제신문사), 1982년 제1회 다산경제학상(한국경제신문사), 1990년 청조근정훈장 등이 있다.

수상 소감 〈요지〉

저는 1949년 여름 모교의 상과대학 전문부를 졸업했습니다. 6·25전쟁을 무사히 겪은 것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 덕택이었습니다.

1968년 모교 상과대학에 교직을 발령 받아 많은 젊은 수재들을 가르치는 분에 넘치는 행운을 받은 것은 모교 그리고 동료 선·후배 교수들 덕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칭호 중에서 제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모교 명예교수'입니다. 80이 넘은 지금까지 공사간 크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살펴 주신 것은 항상 나라와 모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해주신 성인 지사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일생 최고의 영예를 받고 나니 더욱 앞으로는 허영을 좇는 일이 없을 것이며 자유롭고 공명한 심경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 인생은 본질적으로 즐거운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책읽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없고, 글쓰기도 무척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이것도 일종의 노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나침이 없도록 스스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담하게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나라와 모교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모교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모교 발전에 헌신하는 삶

"장학빌딩 건립 … 동문단합 유도"

본회 林光洙회장

林光洙회장은 1952년 모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1958년 임광토건 대표로 취임해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과 통찰력,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임광토건을 국내외 유수 토목 건설회사로 성장시켰다.

林회장은 1976년 창립된 사단법인 항만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 15년간 협회를 이끌며 국내 기간 항만건설과 운영기술의 선진화에 공로가 지대했다.

1998년 공과대학 동창회장에 취임해 엔지니어하우스 준공 등 공학발전을 위해 봉사했으며 2002년 서울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해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교수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빌딩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기금 3백억원 모금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모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1980년 철탑산업훈장, 1987년 동탑산업훈장, 2001년 관악대상 등이 있다.

수상 소감 〈요지〉

회고해 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내 뒤에 우뚝 서서 나를 지켜준 모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생동안 서울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으며, 이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모교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지난 1998년 공대동창회장으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난 2002년부터 서울대 총동창회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국내 최고의 국립대학이라는 것을 믿고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30만 동문을 단합시켜 모교를 적극 도울 수 있을까, 모교와 동문사회가 하나가 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해 오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모교를 지속적으로 돕고 동문들의 애교심을 불러일으켜야겠다는 신념 하나로 많은 어려움을 딛고 많은 동문들의 도움과 호응을 이끌어내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회관건립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금을 모금했으며, 현재 기초공사가 착실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동창회 재산 1천억원 시대가 열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뿌리깊은 나무인 모교 서울대의 영광과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쏟고 애정을 갖겠다는 수상소감으로 대신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철강업계의 선두주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큰 행운"

포스코 李龜澤회장

李龜澤회장은 1969년 모교 공과대학을 졸업했다. 포항제철 1기로 철강업계에 진출해 2003년 대표이사로 최고경영자에 오르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제철기술을 통해 포스코를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李회장은 과학기술 진흥과 국민문화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한국철강협회장, 국제철강협회장 등을 맡아 우리나라 경제와 철강산업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1999년 과학기술 진흥과 국민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 2005년 옥관 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 〈요지〉

사실 대학시절 제 꿈은 졸업 후 유학을 다녀와서 강단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고하신 尹東錫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는 인생의 행로를 바꿨습니다. 尹東錫교수님께서는 1945년부터 모교에서 금속공학을 가르쳐 오신 금속공학계의 큰 스승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관제철소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제게 당시 포항제철 입사를 권유하셨습니다. 교수님 말씀만 믿고 처음 포항에 내려갔을 때는 황량한 모래언덕에 기가 질리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그 덕분에 지난 40년 인생을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나서 한 평생 인생을 걸 만한 도전 과제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제겐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돌아가신 尹東錫교수님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 때, 후배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2회 세계대학총장포럼 개최

'대학의 역할' 서울선언 발표

모교 소식

모교는 지난 10월 13~14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세계대학총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모교 李長茂총장, 미국 예일대 리처드 레빈 총장, 일본 도쿄대 고미야마 히로시 총장·와세다대 가츠이치 우치다 총장, 영국 런던시티대 말콤 길리스 총장,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하이츠 엥글 부총장, 캐나다 앨버타대 인디라 사마라세케라 총장·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존 햅번 부총장,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스튜어트 맥커천 총장 등 7개국 9개 대학 총장 혹은 부총장이 참석했다.

총장단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해당주제에 대한 결론을 모아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21세기 대학들은 물질적 풍요를 지속하고 인간공동체의 결속을 상화하기 위한 인적·사회적·지적 자원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은 책임감 있는 공적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과 개방성의 모델이 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문적 자유와 제도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리더십센터' 출범

글로벌 지도자 육성 본격화

모교는 지난 10월 16일 관악캠퍼스 미술관(MoA) 2층 강의실에서 학내외 인사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리더십센터 해람식을 가졌다.

기초교육원, 경력개발센터, 대학생활문화원 등에서 리더십 교육을 진행했지만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공리더십센터는 '서울대 리더십', '리더십 기술' '공공인턴십' '미래사회와 리더십' 등의 교과목을 신설해 교내 리더십 교육을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李長茂총장은 기념사에서 "리더십의 기본 원리는 나를 위한 것도, 너를 위한 것도 아니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리더십 훈련은 학문이 토대가 돼 남과 더불어 어울리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安秉萬(행정60-64)장관은 축사에서 "'리더는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자'라는 말이 와 닿는다"며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날로 융성하는 모교가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건배사에서 "다양한 과정을 이수한 후배들이 세계 리더로서 맹활약할 뿐 아니라 해외 유수 대학과 기업들까지도 가장 배우고 듣고 싶어하는 리더십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리더십센터는 역대 우리 사회 주요 인물을 기리는 의미에서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2009년 1학기부터는 '故 李鍾郁 WHO 사무총장 펠로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숙사 재건축 착공

7개동 2010년 완공

지난 10월 7일 관악캠퍼스 기숙사 운동장에서 학생기숙사 '관악사' 재건축 기공식이 열렸다.

이번 재건축 대상은 기존의 관악사 구관인 4~5층 건물 9개동이며, 2010년 7월에 연면적 67,235.7㎡,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7개동이 완공될 예정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7백82억원을 출자해 시행되는 재건축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이뤄져 사업자는 건물을 모교에 기부채납하고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식사에서 "이 사업은 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면학의욕을 높이고 국내외 우수한 학생을 보다 많이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건물이 완공되면 뛰어난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고 머물고 싶어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정도의 심도있는 학술교류가 이뤄져 한국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훌륭한 복합건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모교는 재건축이 완공되면 수용인원이 기존 3천6백여 명에서 4천7백여 명으로 증가해 학생 수용문제가 해결되고 서울생활이 어려운 지방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폴 크루첸 노벨상 수상자

자연대 석좌교수로 초빙

199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첸(Paul J. Crutzen)박사가 모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초빙석좌교수로 임용된다.

크루첸 박사는 2009년 3월부터 모교에서 공동연구, 세미나, 공개특강, 학생지도 등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게 된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크루첸 박사는 1973년 스웨덴 스톡홀롬대에서 기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기 중에 분포한 오존층의 역할 등 대기화학 연구를 선도해온 세계석학이다.

모교는 크루첸 박사 초빙을 위해 직접 독일에 다녀오는 등 10개월 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글로벌 헤드헌팅을 통해 해외석학 등 외국인 교수 1백명 초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필즈메달 수상자인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를 초빙한 데 이어 현재(2008년 10월) 모교에는 총 74명의 외국인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음악대학

오페라 '리골레토' 성황

모교 음악대학(학장 鄭台鳳)과 오페라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25회 정기오페라 '리골레토' 공연이 지난 10월 15~18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연일 좌석을 가득 채우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연의 총 감독은 모교 성악과 朴世源(성악66-72)교수, 오케스트라 지휘는 모교 작곡과 金德基교수가 맡았으며 재학생 30여 명이 출연했다.

음악대학은 2년에 한번씩 개교기념일을 기념해 정기오페라 공연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의 실력이 기성 오페라단과 견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榮〉

許英寅회장·尹錫金회장·鄭晳圭이사장·모교 李長茂총장·李龍熙회장·韓楠熙대표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이 '손에 손잡고'를 열창하며 모교 발전을 기원했다.

발전기금 '감사와 후원의 밤'

제1회 발전공로상 5명 시상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MBC 李政玟(언론정보97-01)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李長茂총장은 "최근 모교가 이룩한 주목할만한 성취는 동문과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꿈을 함께 이루자"고 말했다.

金泳三(철학47-51)前대통령의 축사에 이어 제1회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삼아알미늄 韓相龜명예회장, 신양문화재단 鄭晳圭(화학공학48-52)이사장, 태광사 李龍熙회장, 웅진그룹 尹錫金(AMP 27기)회장, SPC그룹 許英寅회장을 선정,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날 삼아알미늄 韓相龜명예회장을 대신해 아들인 韓楠熙(항공공학75-79)대표가 대리 수상했다.

이어 모교 자원봉사 재학생 20명이 이날 참석한 8백여 명의 모교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장미꽃을 한 송이씩 전달했다.

모교를 후원해온 기부자들과 동문,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을 초청한 이번 행사에서 발전기금은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대, 감사와 후원의 밤'이라는 주제를 걸고 그동안 추진해온 모금 캠페인 '비전2025'에 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南益鉉상임이사는 '기금 약정식' 순서를 진행하며 "모교의 1년 예산 9천4백억원 중 국가의 지원은 25%도 안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성이 담긴 신청서를 통해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전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발전위원회 尹鍾龍공동위원장은 "그동안 월급 받아 꼬박꼬박 모은 돈의 일부를 오늘 기부하겠다"며 "우리 모두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모교를 위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모교가 국제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단합된 마음으로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서울대의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위해서!"라고 축배를 제의했다.

축하 행사로 열린 SBS프로덕션 金正澤(기악69-74)예술단장의 '나의 서울대 이야기' 콘서트에서는 SBS 오케스트라 단원과 朴賢宰(성악86-90)·金秀眞(성악88-92)동문, 서울대 남성중창단이 출연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현재 발전기금의 규모는 2천6백15억원(2008년 8월)으로 2010년까지 총 3천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金泳三 前대통령, 金在淳 前국회의장, 李容勳 대법원장, 李賢宰·鄭元植·盧信永 前국무총리, 본회 林光洙회장·孫一根상임부회장 등 각계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했다.

金大奎동문 3억 출연

'슬로싱실험동' 지원

지난 10월 17일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시뮬레이션테크 金大奎(조선공학84-88)대표(사진右)가 공대 '슬로싱실험동'을 위한 발전기금 3억원을 쾌척했다.

金대표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갈 후배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했다"며 "이 기금으로 보다 나은 공대 '슬로싱실험동'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문학자료 받아

중앙도서관서 전시

모교는 국어국문학과 權寧珉(국문71졸)교수를 통해 추진해온 재일교포 김학렬 박사의 북한문학자료를 기증 받아 소장하게 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중앙도서관(관장 徐敬浩)은 '학렬문고'를 설치하고 지난 10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榮〉

"관악을 보고, 듣고, 맛보세요"

문화 향기 가득한 캠퍼스 투어

서울대발전기금은 선후배간 만남을 주선하고 학내 다양한 문화시설 및 전시를 관람하는 캠퍼스 투어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접수** : (재)서울대발전기금 캠퍼스 투어 담당자
- Tel : 02-871-1222 / Fax : 02-872-4149
- 홈페이지 : http://www.snu.or.kr / E-mail : snuf@snu.ac.kr

◆**참 가 비** : 없음.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모집단위** : 20명 내외
- 단과대·특별과정·학과별 사전 신청에 따라 졸업기수 형태로 진행 예정
- 기수 당 20명 내외

◆**내 용**
- 학내 문화시설 및 전시 관람 및 교내 인사·후배와의 만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미술관, 박물관, 중앙도서관, 관악수목원)
- 기타 학내 체험 등
  (홈커밍데이와 같은 단과대학(원) 및 학과 자체 행사에 편성·활용 가능함)

* 학내 투어 기관은 단과대와 학과의 요청에 따라 맞춤으로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 長 茂

발전기금 기부자에게 '맞춤 서비스' 제공합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부자 만족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부한 금액에 따라 예우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기금은 모교 발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뿐 아니라 모교에 출연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 분		예우 프로그램 내용
SNU President's Honor Club –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출연자 예우 포함 • 기부자 본인 및 가족 연 1회 총장공관 만찬 초청 • 뇌, 척추, PET 3개의 프리미엄 프로그램 중 택일해 연 1회 종합건강검진 평생 무료
SNU Gold Honor Club – 10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출연자 예우 포함 • 호암교수회관 객실 연 7일 무료 사용 • 강남헬스케어센터에서 연 1회 건강검진 평생 무료
SNU Honor Club – 1억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출연자 예우 포함 • 기부자 요청 시, 기금에 명칭 부여 • 교내 주요행사 초청 • 포스코 스포츠센터 일일 자유이용프로그램 무료 이용 • 관악캠퍼스 무료주차가 가능한 주차태그 제공 • 모교 병원의 예약대행(진료/입원/응급실)과 의전서비스 및 무료주차를 포함하는 통합진료 편의서비스 제공 • 강남헬스케어센터 1억원 당 연 1회 무료 건강검진 (비용은 발전기금 부담)
SNU Sponsor	1천만원 이상	• 1백만원 이상 출연자 예우 포함 • 감사패 수여 • 기부자 명패 대학본부 명예의 전당 등재 • 관악캠퍼스 내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무료 관람
	1백만원 이상	• 기념품 및 대학 정기 간행물 제공 • 1년간 중앙도서관 특별회원으로 도서 대출 가능 • 관악캠퍼스 포스코 스포츠센터 회원 가입 가능 • 호암교수회관 멤버십 카드와 동일한 할인혜택 제공

기부자에게는 각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카드와 주차권을 발급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 長 茂

동문기업 탐방

(주)시뮬레이션테크

金大奎대표

지난 10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공대 '슬로싱실험동' 증축을 위한 약정식이 열렸다. 발전기금 3억원을 쾌척한 주인공은 선박용 기자재 전문업체인 (주)시뮬레이션테크(STI)의 金大奎(조선공학 84-88)대표.

그는 "우리나라가 조선산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슬로싱기술은 아직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다"며 "작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증축 예정인 '슬로싱실험동'에서는 LNG선박 제작에 핵심적인 기술인 슬로싱의 해석과 연구를 하게 된다.

세계 최소형 블랙박스 개발

金대표는 지난 2001년 후배 한 명과 시뮬레이션테크를 창업해 현재 40여 명의 직원이 있으며 부산과 해외에 지사까지 둔 연간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金대표는 회사연구소에 공학박사만 6명을 보유할 정도로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

모교 졸업 후 영국 서섹스대에서 인공지능분야를 연구, 공학박사학위를 받은 金대표는 13년간 대우조선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 후 탄탄한 대기업의 연구직을 버리고 벤처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처음에는 선박 관련 기자재를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형편이 안타까워 시작하게 됐다"며 "시장규모가 큰 선박 시뮬레이션 관련 업종은 현재 세계시장에서 블루오션과 같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기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얼마전 시뮬레이션테크는 세계 최소형 선박용 블랙박스를 자체 기술로 개발, 해외 수출까지 성사시켰다. 해상 선박사고 조사에 필수인 선박용 항해기록장치(VDR : Voyage Data Recorder) 40대를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등 4개국 선주회사에 공급, 창업 7년만에 해외 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시뮬레이션테크가 개발한 VDR은 1년간 국제해사기구(IMO)산하 인증기관인 MED(유럽)와 USCG(미국)의 까다로운 인증테스트를 모두 통과, 이 같은 결실을 거뒀다. 이 제품은 기능면에서 일본, 덴마크, 스웨덴 등에 뒤지지 않는데다 크기가 가로·세로 60㎝, 높이 36㎝로 상용화된 제품 중 가장 작다. 또 3천t급 중소형 선박에 장착이 가능하며, 가격 역시 대당 1천5백만원대로, 보통 대당 4천만원인 기존제품의 절반가격도 안 된다. 핵심부품과 운용프로그램 모두를 국산화하면서 원가를 대폭 줄인 탓이다.

시뮬레이션테크는 VDR 외에도 선박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LNG선용 ESDS(긴급차단장치) 등 다수의 선박용 기자재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모두 고기술 제품으로 기술적 난이도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STI가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특수선 조선사업에 눈돌려

시뮬레이션테크는 선박기기 개발에 머물지 않고 특수선 조선사업분야에도 진출했다. 지난 6월 수출용 소방선 1척을 수주한 것. 조선경험은 없지만 선주는 회사와 金대표의 능력을 인정해 이 거래가 성사됐다.

金대표는 "협의 중인 추가 선박수주가 마무리되면 명실공히 국내 특수선 제작 전문회사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산업시장을 개척하는 안목을 가진 그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해서 후학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문지식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산업을 책임질 일꾼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모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했다.

모교에 발전기금을 출연한 金대표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후배들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榮〉

서울 가산동 SK트윈테크타워 11층에 자리한 시뮬레이션테크 사무실

세계 선박 기기시장의 '强小기업'

(주)이노지스

金凡洙사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체통에 꽂힌 두툼한 카탈로그가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서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형 홈쇼핑·백화점·기업에서 발행하는 홍보 우편물의 대부분은 개인정보유출에 민감하고 빠른 소식을 접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DM업체 및 택배회사에 맡겨져 배달된다.

이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택배회사를 제외하고 중·소 민간기업이 자체 조직을 이용해 각종 홍보물이나 매체를 배달하는 것을 직배(직접배송)라고 부른다. 민간기업의 직배시장 규모는 연간 약 4천5백억원으로, 물류업계의 떠오르는 틈새시장이다. 그 중에서 특히 홈쇼핑 카탈로그, 각종 대량 홍보물, 학습지 배송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 바로 (주)이노지스(사장 金凡洙·건축89-93)이다.

1991년 DM업체로 출발한 이노지스는 1996년부터 자체 배송조직을 갖추고 학습지 등을 배송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부터 GS·CJ·현대·농수산·롯데홈쇼핑, 두산오토 등 국내 6대 홈쇼핑 회사 카탈로그의 30%(월간 3백만부)를 배송하며 민간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직배로 물류 틈새시장 공략

홈쇼핑회사의 카탈로그는 반드시 고객에게 전달돼야 매출이 발생하는 중요한 홍보수단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에 맡겨진 카탈로그 배송은 고객에게 확실히 배달된다는 신뢰성과 경쟁업체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

신뢰부분에선 이미 명성이 자자한 이노지스의 주 고객은 홈쇼핑회사 외에 현대캐피탈과 현대자동차 같은 사보발행 대기업, 금성·웅진출판사, 서울문화사, 한겨레신문사·조선일보사와 같은 언론·출판·교육관련 회사, 한국생산성본부 등 대량매체를 발송하는 업계 선도기업들이다.

이름도 생소한 민간업체에 배송을 맡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金동문은 "고객 데이터의 가공 및 출력, DM포장, 배송, 반송처리의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기업"이라며 "매월 3백 종류 이상의 매체를 8백50만건 이상 처리해 내는 17년간 축적된 노하우는 다른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 10년 이상 함께 동고동락해온 전국의 베테랑급 지사장들도 큰 재산이라고.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는 이노지스는 영업을 겸하고 있는 다른 택배회사의 지사와는 달리 배달·관리만을 전담하고 있으며, 전국의 74개 주요 도시에 설립된 독점지사를 통해 일괄 처리된 물량을 배송한다.

'우편물 도착 알림' 전매특허

'우편물 도착알림 서비스'는 이노지스의 가장 큰 자랑거리. 분실되기 쉬운 고가의 잡지 등이 우편함에 도착되는 즉시 고객에게 문자로 통보되는 서비스이다. 이는 고가의 매체를 발송하는 업계에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연간 2백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노지스는 2007년부터 신용카드 배송과 인터넷 쇼핑몰을 기반으로 한 소형 택배사업에도 진출했다. 金동문은 "신용카드 택배시장은 1천억원, 소형 택배시장은 5천억원 규모에 이른다"며 "1백50원짜리 소책자도 배달할 수 있을 만큼 국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이 부분의 매출도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우편법의 개정과 FTA 체결에 따라 2012년이면 국내의 모든 우편물 배송이 민간업체에 개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金동문은 "돌아보면 쉬운 길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형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틈새를 공략해 고객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열심히 달려온 만큼 앞으로 매출액 1천억원을 달성하는 1위의 기업 특화 민간 우체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表〉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물류센터 자동분류기

국내 유일의 '원스톱' 민간 배송업체

동 정

수 상

▲**金在恩**(교육50-54 이화여대 명예교수·블루닷 창의성연구소장)=지난 10월 16일 종이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자랑스런 종이문화인 종이문화대상(정책혁신상) 수상.

▲**崔鍾泰**(조소54-58 모교 조소과 명예교수)=지난 10월 18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은관 문화훈장 수훈.

▲**吳世榮**(국문61-65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10월 18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은관 문화훈장 수훈.

▲**金性洙**(응용화학64-68 인하대 교수)=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화학회 기간 중 Elsevier에서 수여하는 'Most Cited Paper 2005-2008 Award' 수상.

▲**金鍾勳**(건축69-73 한미파슨스 사장)=지난 10월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 시상식에서 건설부문 대상 수상.

▲**金磐石**(화학공학76졸 LG화학 부회장)=지난 10월 21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수여하는 2008년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인재경영대상 수상.

▲**金槙和**(기악85-89 SK매니지먼트 컨설팅 회장)=지난 10월 14일 아시안여성경제인협회(AWIB)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우수 여성 기업인상 수상.

▲**禹相浩**(서양화89-93 남서울대 겸임교수)=지난 11월 1일 서울 흥인동 충무아트홀에서 주관한 기획공모전에서 대상 수상. 또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충무갤러리에서 '동대문운동장'을 주제로 전람회 개최.

▲**金素賢**(성악94-98 뮤지컬 배우)=지난 10월 20일 제14회 한국뮤지컬대상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수상.

▲**都東煥**(AMP 26기 민족문화영상협회장)=지난 9월 28일 성균관이 주최한 추기석전제에서 孤雲 효도대상(효자·효부상) 수상.

▲**梁基海**(GLP 14기 세기종합환경 대표)=지난 10월 2일 YTN 친환경 주거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재단 이사장상(친환경 건축자재·상품부문) 수상.

인 사

▲**權 誠**(법학60-66 前헌법재판소 재판관·언론중재위원장)=지난 11월 1일 인하대 초대 로스쿨원장에 취임.

▲**安文錫**(경제61-65 前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장·고려대 교수)=지난 10월 9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8대 이사장에 선임.

▲**片宗根**(토목공학66-70 명지대 교수)=지난 10월 15일 임기 1년의 대한토목학회 제41대 회장에 선출.

▲**郭柄善**(교육66-70 前한국교육개발원장·경인여대 학장)=지난 10월 21일 한국교육학회 제39대 회장에 선출.

▲**尹在一**(의학66-72 모교 피부과 학교실 교수)=지난 10월 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피부과학회 이사회에서 임기 4년의 제8대 회장에 선출.

▲**金鍾勳**(농경제67-72 매일경제TV 부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0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내 방송영상·IT단지 조성프로젝트인 삼송브로멕스(AMC)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吳世翼**(농학67-74 前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난 10월 8일 임기 3년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1대 원장에 선임.

▲**權泰信**(경제68-72 前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지난 10월 14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

▲**金仁圭**(정치69-73 前KBS 이사·성균관대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10월 10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

▲**尹大熙**(경영69-73 前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前국무조정실장)=최근 경원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에 부임.

▲**曺炳喆**(사회73-77 세계일보 수석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지난 10월 10일 세계일보 논설위원실장에 선임.

▲**李俊雄**(행대원73-75 국제경영연구원 대표·행대원동창회 사무총장)=지난 10월 11일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강남지회장에 선출. 또 18개 지역 지회장 협의회 회장에 선임.

▲**田宅秀**(사회교육78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지난 10월 21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18대 사무총장에 임명.

▲**李明淑**(지구과학75-79 前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경기대 교수)=지난 10월 1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9대 원장에 선임.

▲**金恩植**(임학75-81 국민대 교수)=지난 10월 17일 열린 사단법인 한국생태학회 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선임.

▲**曺永達**(사회교육79-83 모교 사범대학 학장)=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3회 세계사범대학회의 국제회의에서 차기 의장(임기 2009년 8월~2010년 8월)에 선출.

▲**蔡耕玉**(경영86-90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차장 겸 여성팀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0월 18일 매일경제신문 뉴스속보국 취재팀장에 선임.

▲**李承漢**(SGS 11기 삼성테스코 사장·SGS동창회장)=지난 10월 1일 삼성테스코(홈플러스), 前홈에버, 아띠제블랑제리로 구성된 홈플러스그룹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

행 사

▲**鄭晳圭**(화학공학48-52 신양문화재단 이사장·관악회 이사)=지난 9월 28일 서울 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에서 傘壽宴을 갖고, 고무인생 50년·사회봉사 40년의 발자취가 담긴 회고록(축소판) 발간.

▲**崔斗衡**(행정51-55 성원개발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0월 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자서전 '삶으로부터 배우는 인간

경영'(이미지북刊) 출판기념회 및 금혼식 개최.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0월 4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가천길재단 설립 50주년 기념 '비전콘서트' 개최. 또 22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기념식 개최.

▲**閔丙畯**(사회교육52-56 한국광고주협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0월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광고주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광고주의 밤 행사 개최.

▲**朴永寅**(농학56-62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한뉴질랜드협회장)=지난 10월 10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뉴질랜드대사관과 공동으로 한·뉴질랜드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

▲**李秉錫**(회화58-62 서울은평미술협회장)=지난 10월 22~28일 서울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바람이 머무는 곳'을 주제로 서울미술관 초대전 개최. 또 25~29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현대미술전 초대전 개최.

▲**任德淳**(지리교육58-62 충북대 명예교수)=지난 10월 15일 한림대 한림과학원 수요세미나에 초청돼 '경제론과 한국 국경문제들에 대한 핵심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특강.

▲**鄭玩鎬**(생물교육58-63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지난 10월 2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과학 싹 큰 잔치' 개최.

▲**金守經**(치의학58-63 김수경치과의원장·계간 문학정신 발행인)=지난 10월 22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프레스클럽에서 계간 文學精神 재창간 기념회 개최.

▲**趙誠愛**(응용미술64-68 잉킹판화공방 대표)=지난 10월 18~22일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全慶鈺(조소75-80)·朴顯淑(회화75-79)동문과 함께 작품전 개최.

▲**金榮愛**(성악67-71 경원대 교수·소프라노)=오는 11월 23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독창회 개최.

▲**徐玉植**(동양사학69-73 성결대 외래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10월 20일 발간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논문집 제2집에 '북한 선군정치의 역사적 등장배경과 통치이데올로기적 기능'이란 논문 발표.

▲**文龍子**(대학원72-74 지성병원 이사장)=최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여의사회 총회에 참석. 또 지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병원과 남북협력 관계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

▲**朴明潤**(보대원74-76 청소년보호위원장·관악회 이사장)=지난 10월 22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鄭頊熹·孫德周대학원생에게 '朴明潤특지장학금' 1백만원 수여.

▲**李相起**(서양사학81-87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아시아기자협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0월 7일 서울 무역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아시아기자협회(AJA) 포럼 개최.

▲**金敬娓**(성악81-85 모교 강사·소프라노)=지난 11월 2일 서울 여의도동 영산아트홀에서 포레, 풀랑, 사티, 비제 등의 작품으로 독창회 개최.

▲**林慶園**(기악81-85 성신여대 교수·첼리스트)=오는 11월 1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멘델스존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申東眞**(철학86-93 다큐멘터리 감독)=최근 부인 채선미(응용미술82-86 1919디자인 대표)동문과 함께 구한말부터 1948년 정부수립까지의 독립운동과 건국 관련일지를 '오늘의 대한민국 건국사'란 이름으로 정리한 테마달력 발간. (cafe.daum.net/real-right)

▲**曺智鉉**(기악86-90 단국대 교수)=지난 11월 5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앨범의 여덟 번째 무대 'To-morrow' 개최.

▲**鄭修安**(기악90-94 추계예대 겸임교수·플루티스트)=오는 11월 22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벨리니, 슐호프, 다마레 등의 작품으로 플루트 독주회 개최.

▲**李碩埈**(기악90-95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호르니스트)=오는 11월 20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아반 등의 작품으로 호른 독주회 개최.

▲**조수현**(기악93-97 경남대 대우교수·피아니스트)=오는 11월 19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베토벤,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귀국 피아노 독주회 개최.

▲**趙允新**(기악91-95 모교 강사·오보이스트)=오는 11월 25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라인첸슈타인, 생상 등의 작품으로 오보에 독주회 개최.

▲**임상우**(기악98-02 숙명여대 강사·클라리네티스트)=오는 11월 29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프랑세, 브람스, 베리오 등의 작품으로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개최.

▲**安鎬元**(HPM 6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시인)=지난 9월 24~29일 서울 영등포문화예술회관에서 시화전 개최. 또 26일 영등포구민의 날 축하공연장에서 문인대표로 축시 낭송.

▲**李一魯**(AIC 1기 前KBS아트비전 사장·한국방송제작기술협회장)=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팔판동 한벽원미술관에서 '초가집과 대화' 사진자료집 출판기념회와 전시회 개최.

명복을 빕니다

▲**申萬鍊**(대학원50졸 前고려대 의대 학장)=지난 10월 15일 별세.
▲**李熙德**(사회학54졸 덕성 회장)=지난 10월 26일 별세.
▲**黃昌益**(법학59-64 前한국수출입은행 이사)=지난 10월 8일 별세.
▲**金元泰**(법학61-65 前금융통화위원)=지난 10월 11일 별세.
▲**朱元相**(행정65졸 前중앙일보 편집부국장)=지난 10월 2일 별세.
▲**金永哲**(농화학65-69 前국무총리실 사무차장)=지난 10월 10일 별세.
▲**張在洪**(법학69-73 동양메이저 부사장)=지난 10월 4일 별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합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혼(魂)이 있는 공무원

— 高炳佑 지음

평생을 공직자로 살았던 한국경영인협회 高炳佑(경제52-56 前건설부 장관)회장이 직접 겪었던 실화와 감회를 담아 회고록을 발간했다.

高회장은 이 책에 국민경제연구회의 전문위원에서 출발해 농림부 국장, 대통령 경제비서관, 재무부 차관보, 쌍용투자증권 사장,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건설부 장관 시절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담았다.

이 책에서 高회장이 대한민국의 창조적 건설에 몸을 던져 열심히 일한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늘푸른소나무刊·값12,000원〉

새로운 패러다임 영어

— 黃正植 지음

시사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黃正植(정치52-57)동문이 펴낸 영어학습의 새로운 길라잡이.

이 책은 술어의 중심이 되는 동사의 종류를 정확하게 구별해 개별동사의 특성을 알고 동사와 부사, 전치사, 형용사 등이 연계돼 이뤄지는 술어를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정리해놓은 지침서이다.

黃동문은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어법을 자연스럽게 익혀온 서양인들은 굳이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별할 필요가 없을 줄 모르나 영어를 학습으로 배워야 하는 우리로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 명확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태학사刊·값15,000원〉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 高永根 지음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모교 국어국문학과 高永根(국문56-61)명예교수가 이미 발표한 논문을 체계적으로 편집하고 내용을 보충해 한글날 562돌을 맞아 펴냈다.

이 책에서는 '국어, 한국어, 조선어, 문화어, 고려어' 등 관점에 따라 달리 불리는 우리말을 포괄하는 뜻으로 '민족어'라고 썼다.

이 책은 머리부분과 본문 3부로 구성됐으며, 개화기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공간에 이르기까지 어문학자들의 민족어문에 대한 견해를 해석학적 언어철학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 영향 문제를 다뤘다. 〈제이앤씨刊·값30,000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비밀

— 李世昌 지음

이 책은 하고 싶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온 한 개인의 진솔한 고백과 참회의 기록을 담고 있다.

저자 李世昌(행정57-61 서울로타리클럽 회장)동문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전쟁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고학으로 야간학교를 거쳐 모교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에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평탄치만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자신의 살아온 길을 담담하게 술회하는 李동문은 여러 가지 삶의 경험에서 깨달은 가치들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들려준다.

저자는 13세부터 39세까지 스무 개에 가까운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칠순의 나이를 넘겼다. 꼿꼿이 자신의 길을 살아온, 사랑과 열정에 찬 그의 인생역정이 펼쳐진다. 70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살고 있는 그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꿈꾸고 있다. 〈기파랑刊·값15,000원〉

민영공화국

— 柳莊熙 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한국경제학회장,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등을 지낸 柳莊熙(경제59-63)명예교수가 전환기 한국경제, 민영화가 도약을 이끈다고 주장한 책.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성장활력의 큰 부분이 경제개방으로부터 온다는 글로벌 개념에 충실한 柳동문은 이 책으로 통해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을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상 정부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민영화가 가능한 것인지를 점검한 다음, 민영화 과업을 추진하는 데 동원되는 각종 형식과 방법을 소개했다. 〈굿인포메이션刊·값12,000원〉

두리와 한빛

— 崔尙圭 지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장을 지낸 崔尙圭(동물학63-67 한국추리작가협회 부회장)동문이 과학추리 장편소설을 펴냈다.

이 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의 달라질 과학혁명을 알려주고 미래에 발생할 범죄사건 해결을 위해 'CSI청소년 과학수사대'를 창설, 한국의 독도 주변 바다에서의 해양 범죄사건들을 청소년 '두리와 한빛' 대원이 주인공이 되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崔동문은 청소년들이 뛰어난 상상력, 사고력, 추리력으로 해양범죄사건을 해결하는 수사 과정을 재미있게 읽고 과학탐구 학습은 물론 해양과학수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장래의 꿈과 희망,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들꽃사랑刊·값8,500원〉

세상을 움직이는 힘 에너지

— 辛賢貞·함석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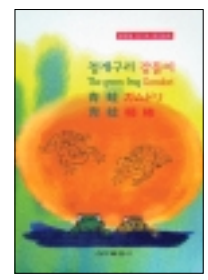
'지구도 감기에 걸린다?'(더난출판사刊) 와 '지구는 오늘도 바빠요!'(토토북刊)를 함께 쓴 辛賢貞(지구과학02-06)·함석진(지구과학02-07)동문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동화로 설명했다.

에너지를 낭비해 에너지 나라로부터 전기 사용을 금지당한 철이와 토토가 요정과 에너지 나라로 탐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철이와 토토는 그곳에서 빛에너지 대신, 위치에너지 대신 등과 만나면서 에너지란 무엇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미래에 사용할 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배우게 된다. 〈토토북刊·값9,000원〉

청개구리 감돌이

— 梁基海 지음



(주)세기종합환경 梁基海(GLP 14기)대표가 지구환경의 오염, 개발에 따른 청개구리의 험난한 삶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의 원천인 생태계를 생각하고 동심으로 돌아가 환경을 되돌아보는 내용의 책을 펴냈다.

梁동문은 한글, 영어, 일어로 쓴 이 동화책에서 '물을 잘 다스리고, 창조적인 삶을 살라'는 청개구리 감돌이 엄마의 유언을 소개하면서 모든 병은 물에서 오며, 모든 병의 치료도 물로 할 수 있고, 물은 지구의 혈액임을 강조하고 또 '상상은 마음이고, 마음은 곧 힘(氣)'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신아출판사刊·값10,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6-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회(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종(경제학59-63)
△김정식(통신공학48-56)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자행
△홍성대(수학57-63)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공학48-52)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2억원
△남정현(건축학57-61)
△이종기(경영학69-73)
△장학순(토목공학46-50)
△조필제(조선항공46-50)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촌5부자
◆1억2천만원
△엄병윤(외교학60-64)
◆1억1천만원
△성백전(토목공학52-56)
·김안순(화학공학54-58)
△수학과동창회
◆1억30만원
△박성훈(기계공학58-63)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곽동헌(법학61-65)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故김영경(기계공52-56)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묵(상학56-61)
△남상용(건축학52-57)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졸)
△안성철(행정학58-63)
·손윤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응현(섬유공67-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정상(상학59-65)
△이준행(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욱(원예학83-87)
△보건대학원동창회
◆8천만원
△미술대학동창회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화학과동창회
◆5천30만원
△이종헌(경제학59-65)
·신갑순
◆5천10만원
△박남식(SGS 2기)
◆5천만원
△강인구(수의학59-64)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종기(생물교육51-55)
△김종서(경제학58-63)
△김종헌(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윤(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종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순석(약학61-65)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이형도(화학공학61-67)
·박효순(영어교육66-70)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하상완(치의학64-70)
△허병하(상학58-62)
△홍예표(치의학65-71)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농대 일산회
△한우리SJM
◆3천60만원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흥일(영어교육60-64)
△심형윤(토목공학52-56)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악70졸)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송명호(자원공학59-65)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최정길(금속공학52-56)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치불회
◆1천2백만원
△강응선(치의학78-84)
△심영보(의학55-61)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이재철(법학70-77)
◆1천1백50만원
△천남중(광산학65-69)
◆1천1백30만원
△신면우(의학50졸)
◆1천1백만원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7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1천60만원
△박준욱(약학55-59)
◆1천30만원
△심이택(화학공학57-63)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형하(법학74-78)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지헌택(치의학43-47)
△허성길(경제학60-64)
◆1천만원
△강신주(사회교육51-55)
△강신혁(문리66-73)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권동은(F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졸)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영재(공업화학77-81)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종(약학64-71)
△김은식(국사학73-80)
·윤영옥(생물교육72-76)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재호(생물교육53-57)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찬욱(기계공학55-59)
△김철수(법학52-56)
△류태환(상학48-54)
△문대원(경영학71-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종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회(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백사익(채광학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악56-60)
△석학진(상학58-64)
△설동섭(축산학53-57)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안경상(행정학57졸)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유희춘(상학49-55)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동철(토목공학78-82)
△이병재(경대원69졸)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윤(영어영문50졸)
△이인기(지질과학62-66)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종웅(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창원(법학55-60)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익용(기계공학54-58)
△장자준(의학70-77)
△장휴동(농경제학59-63)
△조길웅(HPM 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준기(조선항공57-61)
△추재옥(의학63졸)
△표상기(원자력공61-65)
△하영기(정치학44-48)
△한규택(원자핵공73-77)

△故함인영(기계공학48졸)
△함정호(행정학53-57)
△허 선(정치학64-68)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 11기)
△전북지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
◆9백만원
△김상복(종교학57-63)
◆7백만원
△정경모(행대원65-67)
◆6백만원
△김현산(법학54-58)
△문규철(응용화학69-73)
◆5백만원
△문명국(기계공학73-75)
△박수복(농생물학56-61)
△신박일(약학60-64)
△윤성근(공업교육74-78)
△윤순녕(간호학69-73)
△윤의석(축산학49-53)
△이윤경(간호학65-69)
△이현구(AMP 52기)
△조상근(행정학69-73)
△법대37회 동기회
△FIP동창회(김명도)
◆3백30만원
△김석만(화학57졸)
◆3백10만원
△한규범(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권혁창(지구과학69-76)
△김영수(법학60-64)
△김재율(경성법전39졸)
△안재동(상학60-67)
△이동수(건축학61-66)
△이성기(행대원63-65)
△이재식(교육학75-79)
△임채주(경제학55-59)

△정영채(수의학56-60)
△조원환(AMPP 6기)
△하재규(농학53-57)
◆2백50만원
△홍순명(축산학68-72)
◆2백30만원
△이준형(GLP 11기)
◆2백만원
△나정우(농공학72-77)
△박태원(정치학46-50)
△성기학(무역학66-70)
△오복동(법학57-63)
△이경렬(응용미술69-73)
△이원태(농경제학64-68)
△이종순(법학57-61)
△이헌조(철학52-57)
△이홍구(법학53입)
△이희호(교육학46-50)
△임규운(행정학53-57)
△정용인(법학60-64)
△정주석(법학61-65)
△최창식(의학54-60)
△한영국(경제학50-54)
△허영호(전자공학71-75)
△홍석준(사회학73-77)
△황남주(물리학87-92)
△황선용(사회교육57-61)
△황선태(법학66-70)
△황의인(법학74-78)
◆1백80만원
△노 영(의학70-77)
◆1백60만원
△인효석(농공학80-87)
◆1백50만원
△김건호(수의학70-74)
△김혜경(생물교육70-74)
△윤옥영(수학58-61)
△이기남(수학67-71)
△이진호(화학공학85-89)
△정성진(법학58-63)

△조귀장(사법학86-90)
·김주영(지리학92-97)
△조현래(대학원75입)
◆1백30만원
△김진억(법학55-60)
△문일환(치의학65-71)
△송진해(공업교육63-72)
△이용우(공업교육64-68)
△이종복(응용미술62-66)
△이태형(상학59-63)
△임한조(물리학67-71)
△정휘위(법학62-66)
△조병철(섬유공학59-65)
△최동식(법학76-80)
△최명재(상학48입)
△현천욱(법학72-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농업교육63-67)
◆1백20만원
△강효식(치의학57-61)
△김영도(축산학68-75)
△김주현(의학65-71)
△김진원(건축학68-72)
△나명훈(의학76-83)
△이갑노(의학65-71)
△이계홍(농공학56-62)
△이상건(섬유공학74-78)
△이정우(AMPFRI 17기)
△이창건(전기공학49-54)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0월 24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1백만원
△김유경(SPARC 2기)
△유제운(조선항공51졸)
◆50만원
△양이훈(물리학65-74)
△인정헌(법학54-58)

◆30만원
△김명린(조선항공61-65)
△김진석(농업교육69-75)
△김진옥(농학52-56)
△나병삼(지리교육64-68)
△원상희(의학75-81)
△이성덕(정치학56-60)
△이원호(법학61-65)
△허운욱(철학57-64)
◆25만원
△박성득(ACAD 20기)
◆15만원
△신태은(농공학75-82)
△정용승(천문기상58-62)
◆11만원
△황인준(응용생물03-07)
◆10만원
△곽동석(AIC 19기)
△김억년(잠사학61-66)
△김택훈(기계공학51-55)
△나금희(조소61졸)
△박제범(농학53-57)
△송원경(자원공학78-82)
△업치섭(경제학53-58)
△유경순(가정교육61-65)
△유종근(의학71-77)
△이재등(경제학57-61)
△이종호(치의학79-85)
△전경환(농화학80-84)
△전부자(가정교육61-65)
△정영숙(약학52-56)
△정응균(인류학87-93)
△정종균(ACPMP 2기)
△정찬주(의류학81-85)
△조은자(가정교육61-65)
△조정자(가정교육61-65)
△조종도(서양사학82-86)
△진은숙(가정교육61-65)
△최규순(가정교육61-65)
△최재동(AIP 20기)
△추준오(농경제학84-92)
△한철순(수학58-62)

〈이상 2008년 9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지면 관계로 회비 납부자 명단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